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2009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2009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7 July 2009

### 1주차 06.29-07.05

1. 대내정세 — 2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7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0

### 2주차 07.06-07.12

1. 대내정세 — 1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2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28

### 3주차 07.13-07.19

1. 대내정세 — 3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1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47

### 4주차 07.20-07.26

1. 대내정세 — 5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58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65

### 5주차 07.27-08.02

1. 대내정세 — 6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0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86

인쇄 : 2009년 9월 발행 : 2009년 9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 8 August 2009

## 1주차 08.03-08.09

1. 대내정세 — 9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6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 111

## 2주차 08.10-08.16

1. 대내정세 — 11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6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33

## 3주차 08.17-08.23

1. 대내정세 — 13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8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53

## 4주차 08.24-08.30

1. 대내정세 — 15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72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7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29-07.05

7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北강남호, 서해 공해상서 북상 중(7/5, 연합)**
  - 미안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향해하다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북한 선박 강남1호가 5일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강남1호가 전남 영광 앞바다에 있는 안마군도에서 서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6일 오전 10 시께 북한 쪽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민주조선, 보복타격 전투동원 태세 유지(6/30, 민주조선; 7/3,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6월 30일자 ‘월간 국제정세 개관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역사의 반동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군대와 주민은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적 압살정책을 높은 각성을 갖고 주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즉시에 맏잔 보복타격을 가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
  
- **민주조선, 美와 공개적 핵대결 불가피(6/30, 민주조선; 연합)**
  - 민주조선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를 비난하며 “엄중한 사태 하에서 우리가 갈 길도 명백해지게 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 공개적으로 핵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30일 주장
  - 신문은 ‘핵우산 제공은 노골적인 북침 핵전쟁 공약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여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나. 경제 관련

### ● 美,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 없어(7/1, 미 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힘.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지난 3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식량지원 활동을 관장해온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문제와 외부세계와 대치하는 바람에 원조가 줄어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

### ● WFP, 北식량지원 계획대비 1/3로 감축(7/1, WFP)

- 핵실험 등 여파로 북한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고 WFP가 1일 밝힘. 토빈 듀 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목표한 620만 명의 1/3에 불과한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설명

### ● 北광고회사, 올해 국제시장 적극 개척(7월호, 조국)

- 북한에서 각종 상품 및 회사 광고를 전담하는 조선광고회사가 올해 국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월간 ‘조국’ 7월호가 보도
- 1일 입수된 잡지는 ‘조선 무역의 오늘’이라는 특집기사에서 지난 2006년 2월 설립된 이 회사가 북한의 “기관, 기업소, 회사들과 경쟁력 있는 상품들

에 대한 광고활동을 세계적 판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사업에 들어갔다”고 전언

● 北, 불법 무기수출 러시아 육로 활용(6/30, 연합뉴스)

- 미국이 무기 선적 의혹이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국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육로로 우회해 수출하는 등 다양한 불법·편법 무기 수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짐.
-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이란·시리아·미얀마 등에 미사일·잠수정·다연장로켓(방사포)·야포 등 약 8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짐.

● 세계가톨릭원조기구, 대북 인도지원 계속(6/30, 연합뉴스)

- 가톨릭교회의 공식 원조기구로 세계 1백 64개 회원기구들이 참여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연례 대북지원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한국 카리타스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한국 카리타스의 이승정 대북협력팀장은 7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대북 지원사업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국 카리타스에 대한 대북 사업 위임 시한을 무기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
-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90년대 초까지는 긴급구호 차원의 식량과 의료 지원에 치중해왔으나 최근엔 인도주의적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바꿨음.

다. 군사 관련

● 北 스커드, 노동미사일 명중률 향상(7/5, 연합뉴스)

- 북한이 4일 발사한 7발의 미사일 가운데 5발 가량이 발사대로부터 450여 km의 같은 지점에 낙하,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5발 가량이 동해 향해 금지구역 내 같은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만큼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정보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200~300기, 사거리 1천300km에 이르는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각각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 북한은 연간 100발의 스커드를 생산가능
- 북한은 7월 4일 오전과 오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모두 7발을 발사

● 北, 100km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7/3, 연합)

- 북한이 2일 오후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 20분과 6시, 7시 50분, 9시 20분께 함경남도 함흥시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4발”이라고 밝힘
- 북한이 지난 5월 29일 이후 34일 만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4발은 모두 10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미뤄 군사훈련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언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120~160km의 KN-01 지대함 미사일로, 길이는 5.8m, 직경은 76cm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83~95km의 실크웜(CSS-C-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실크웜의 전자회로를 개선해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한 KN-01 미사일이 함정에 배치되면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서 우리 해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150일전투' 새벽출근에 야간작업(7/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4일 '150일 전투의 나날에 야간작업이 몸에 배인 여성 노동자들의 합심'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북한에서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평양 삼석구역에 있는 삼석옷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

다고 소개

- 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종전에는 아침 8시에 출근했지만 “지금은 6시에, 모여야 할 사람이 다 모인다”며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작업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하루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기풍 속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혀 노력동원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시사
- 치마저고리를 비롯한 여성복과 아동복, 학생복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특성상 종업원은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이들은 공장에서 1~2km 안팎의 지역에 살고 있지만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척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신문은 보도, 또 “150일 전투 기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식사는 가족들이 보내는 곱밥(도시락)”이라며 “저녁에는 남편이 심부름을 하게 되는 가정도 많다”고 신문은 밝힘.
- 신문은 이 공장의 “현재 월간 증산실적은 연초에 세운 계획의 170% 수준”이라며 “150일 전투가 끝나게 될 9월 중순까지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

● 안변군 집단체조 공연(7/4, 조선중앙TV)

- 강원도 안변군에서 故 김일성 주석 현지도 5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 10주년을 맞아 5천명 군내 학생들이 참가하는 집단체조 ‘장군님과 안변’을 공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축구대표 리명국, 대 이은 골키퍼(7/3, 조선신보)

- “남아공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총공세를 ‘신들린 듯’ 막아내며 북한 대표팀을 본선으로 이끈 골키퍼 리명국은 아버지도 축구 골키퍼 출신”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신문은 리명국이 “체육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며 “아버지는 축구선수 문지기(골키퍼)였고 어머니는 배구선수였다”고 소개

● 北, 월드컵본선 진출도 장군님 덕분(7/3, 연합)

- 북한 축구 관계자들은 북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장군님 전법” 덕분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소재로 활용, 특히 북한 축

구협회 김정수 서기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경기장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했다고 소개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6/30, 연합)

- 미국은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음.
- 미 국무부는 이날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춘강(NCG)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힘.

### 나. 북·미 관계

#### ● 美, 말레이시아 北계좌 확인·추적중(7/4, 연합)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계좌 수 개를 발견해 동결 등 봉쇄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짐. 워싱턴의 핵심 소식통은 “말레이시아에 북한의 수상한 계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고 전언
-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전담반이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것도 이 때문으로,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5일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자와 만나 북한 계좌 봉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6일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음.

● 미국무부, 北 긴장고조 행위해선 안돼(7/4,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 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美안보보좌관, 北도발에 맞춤대응 시사(7/3, 연합)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도발 행태와 수위를 보고 맞춤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 존스 보좌관은 이날 ‘매클래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몇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앞으로 수일간·수주간에 걸쳐 보여줄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

● 오바마,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시사(7/2, AP통신;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이탈리아, 가나, 러시아 해외순방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5월 핵실험과 관련해 규제가 더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분명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활발한 제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북한이 외부로 무기나 핵관련 물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발한 검색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수년 전에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美북부사령관, 北미사일, 美 항할 뎀 격추(7/2, 워싱턴타임스)

- 빅터 레뉴에트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고 감지될 경우 미군은 이를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AD)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레뉴에트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2일 발간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매우 믿을만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 北 7만명, 해외서 강제 노동(7/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CdeBaca) 인신매매퇴치담당 대사는 1일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탈북 노동자들이 착취되는 것과 북한 내 강제수용소도 우려스럽지만 다른 형태의 강제노동도 있다”며 “북한 정부가 동남아시아·동유럽·중동 국가들과 노동 계약을 맺고 주민을 외국으로 이주시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유럽 국가들은 노예로 전락한 북한 노동자들을 이제는 받지 않고 있다”며, 2007년부터 북한과의 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체코를 그 예로 들. 시드바카 대사는 “몽골·태국·라오스 등 북한과 노동 계약이 체결된 국가들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는 6월 16일 발표한 ‘2009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외국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주민의 수가 최대 7만명에 달한다고 추산, 2008년 보고서가 추정한 1만5000여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 2009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 인력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들이 불만을 외부에 노출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또 이들이 해외에서 번 돈은 ‘자발적 기부’라며, 북한 당국이 가로챈다고 밝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란·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수단 등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

다. 북·중 관계

● 中, 北미사일 관련국들에 냉정 유지 촉구(7/5, 연합뉴스)

- 중국이 5일 북한 핵문제 관련국들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줄 것을 촉

구,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 中, 北미사일 발사에 불만 간접 표시(7/5, 연합)

- 중국은 북한이 2일에 이어 4일 동해상에서 다시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각 당사국은 냉정함을 되찾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5일 보도

라. 북·일 관계

● 日,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제기 방침(7/5, 연합)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 태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발사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
-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실에 관계 성·청 간부들로 구성된 대책실을 설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3 대남정세

● 北, 임대료 해결돼야 南기업 애로 해소(7/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일 열린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

양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북측이 요구한 토지임대료가 5억 달러라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회답에서 북측이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차제로 남측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조건들을 풀어줄 용의를 다시금 표시했다”며 “성의에는 성의로, 아량에는 아량으로 화답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 방송은 북측이 토지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우리(북측)안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며 “우리가 제시한 토지임대료의 기준이 남조선과 다른 나라 특구의 보편적 실례로 보나,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과 가치 그리고 그 전망으로 보나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방송은 남측의 입장과 관련,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과는 관계없는 문제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기본문제 토의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얼토당토않은 궤변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

● 김영탁 대표, 남북 입장차 오후 회담못해 유감(7/2, 연합)

-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 우리 대표단이 북측과의 3차 회담을 마치고 2일 오후 5시 15분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옴. 김 대표는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억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제기했고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실질 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종래의 입장만 되풀이 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06-07.12

7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김일성 15주기 추모대회 참석(7/8,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오전 평양체육관에서 김일성 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 지난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 이어 3개월 만에 외부세계에 움직이는 모습을 드러냄.
- 8일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추모대회에서 다소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입장해 주석단에 앉았으며, 대회 시작 후 일어서서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묵념을 하기도 하는 등 3개월 전과 큰 변함없는 동작을 보여줌.
- 다만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거나 앉아서 자료를 읽을 때 화면에 잡힌 그의 머리 윗부분은 카메라가 정면에서 비출 때와 달리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드러났으며, 행사장에 입장할 때나 앉아 있을 때 대체로 무표정한 가운데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다소 비뚤어진 게 나타났음.
- 이날 추모대회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안치하고 주체연호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며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법제화한 것을 가리켜 “수령에 대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라고 찬양
- 그는 “150일 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돌파하고 농업생산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덧붙임. 앞서 이날 0시 김 위원장은 북한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

#### ● 美CIA, 김정일 5년 이내 사망 가능성 71%(7/11, 조선일보; 7/9, 워싱턴타임즈)

-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29%에 불과하다고 최근 우리 정보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

- 정부 소식통은 10일 “미 CIA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정밀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우리 정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CIA는 김 위원장이 뇌졸중과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고 소개
- CIA의 이 같은 추정치는 김 위원장의 나이, 질병, 신체조건 및 뇌졸중을 맞은 시기와 그 이후의 신체조건 변화 등을, 의료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 구한 것으로 알려짐.
- CIA는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 사진 등 공개 정보 외에 우리 정보당국이 입수한 김 위원장의 뇌 사진과 고급 정보원들의 증언 등 각종 정보와 첩보를 종합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지표화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워싱턴타임스(WT)는 9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뇌졸중을 앓은 이후 종전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리 쇠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강으로 인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최근 서양 의학에 따른 치료를 포기한 채 한약과 비전통적 요법 등 동양 의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김정운 나이·경력·학력 ‘부풀리기’(7/8, 연합)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아들 김정운의 나이를 30대 중반이라고 소문을 내고 학력과 경력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8일 “북한 당국이 이제 겨우 25세에 불과한 김정운의 나이를 무려 열살이나 부풀려 35세로 소문을 내고 있다”며 “어린 김정운을 후계자로 앉힌 데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운에 대한 충성경쟁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도 최근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하며 올린 ‘충성의 편지’에서 “김정운 대장동지께서 보위사업을 20년간 지도하시어...보위사업의 영재”라고 말해 김정운의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짐.
- 열린북한통신과 데일리NK 등 대북 소식지들도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나이를 30대 중반, 또는 36세로 소문내고 있다고 일

제히 보도

- 김정운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 외모상 30대라고 해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전문, 김정운은 키 167cm에 몸무게는 87kg 정도로 작은 키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처럼 굽높이 5cm 이상의 구두를 신고 다니며, 현재 국방위원회 지도원 직책이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즐겨 입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또 김정운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사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운은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교육받았으나 등하교를 하지는 않은 채 집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원으로 등록한 이 대학 교수들로부터 개인교습을 받는 방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기본 5년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대학 교수들로부터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교육을 역시 개인교습 방식으로 받았을 수는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추정,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운이 스위스에서 귀환한 뒤 평양시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북형인 김정철과 여동생인 김여정과 함께 개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나. 정치 관련

● 김영남, 비동맹회의 참석차 이집트행(7/12, 연합)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출발, 베이징을 경유해 이집트로 떠났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이 출국하는 공항에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형준 외무성 부상,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와 중국 임시대리대사가 전송했다고 소개

● 北-中 접경지대서 매일 총성(7/12, 산케이 신문)

-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는 거의 매일 탈북자 저격 등을 위한 총소

리가 들린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기 ‘평양의 수족관 :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의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씨의 발언을 인용해 12일 보도

- 신문은 강씨가 “총성은 북한 인민군의 탈북자 저격, 뇌물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 준 군인들을 공개처형하는 소리”라고 말했다고 소개, 강씨는 이런 배경에 대해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식량난은 극히 악화해 있어 주민은 ‘아사냐 탈북이냐’의 양자선택에 몰려 있다. 인민군은 30만명을 접경지대에 배치해 탈북자들을 저격하고 있다”고 산케이에 말함.
- 이어 산케이는 강씨가 “중국 측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없으면 100만명이 넘어올 것”이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주민이 달아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의 강제송환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

● 양형섭, 만경대 혁명일가는 위인 찬양(7/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혁명일가”를 “절세의 위인들”이라고 찬양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양 부위원장은 9일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의 115회 생일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만경대 혁명일가의 절세의 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이 땅 위에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 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무적의 군력으로 백승 떨치고 우주를 정복하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받아 안은 최대의 행운, 최상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며 “‘150일 전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것”을 촉구
-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를 비롯해 당, 군, 정권기관 일꾼 등이 다수 참가

● 김정일, 로켓발사 때 ‘아버지 가호’ 빌어(7/8,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 4월 4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성관 제종합지휘소에서 그 장면을 봤을 뿐 아니라 직접 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발사 명령 직전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
- 김 주석 사망 15주기를 맞아 4면에 게재한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서사시 ‘이 세상 끝까지, 세월 끝까지’를 통해서 소개됨.
- 이 시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에 관한 대목에서 “우리 수령님/ 그 처럼 소원하시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이라며 “발사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앞탁을/ 지그시 두손으로 짚으시고/ 그이 조용히 외우시는 단 한마디/ —수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읊었음.

다. 경제 관련

● 원산, 발전소 덕에 야경 보며 회 즐겨(7/7, 조선신보)

- 북한의 동해 항구 도시인 강원도 원산에서는 지난 1월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에 따라 야간 조명으로 “황홀한 불야성”이 펼쳐진 가운데 시민들이 생선 회도 즐겨 먹는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동명산지구에 위치한 15~3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해안광장을 중심으로 120여 곳에 야간조명인 불장식이 설치돼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이채를 띤다고 소개
- 원산은 북한의 대도시 가운데 평양 다음으로 변화한 곳으로 알려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일본의 북한선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있기 전에는 만경봉-92호가 매달 2차례씩 원산과 일본 니카타(新潟)항을 오간 덕택에 북한은 90년대부터 제일교포들을 겨냥해 원산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 나름 변화한 도시로 조성하는데 주력
- 이번 원산발전소 준공으로 야경이 이처럼 불만해지자 원산 시민들은 ‘황혼이 깃들기 바쁘게 등대가 있는 장덕섬이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잔교, 해안 방파제 등에 발 디딜 자리 없이 모여들어 시내 불장식을 한 눈에 바라본다’고 신문은 보도

- 특히 이 같은 밤 나들이 시민들을 겨냥해 수많은 매점들이 생겨나 낚시로 금방 잡은 오징어, 대양어, 콩미리, 송어 등을 생선 또는 탕으로 가공해 즉석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시민들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설명
- 현지 시민 뿐 아니라, '원산에 출장 온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이곳 해안 방파제에 들러 시내 불장식을 구경하고 생선회를 맛보고서야 귀로에 오르며 특히 송도원여관, 동명여관 등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불장식 구경과 생선회는 빠질 수 없는 관광 일정'이라고 소개
- 조선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5월 원산시 야간조명 현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평양시 불장식에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

● 北, 휴대전화용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7/7, 연합)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려명'이 "손전화(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 북한 언론매체들의 보도나 체제 선전용 영상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7일 확인됨.
- '려명'은 지난 5월 중순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손전화용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5월 22일 보도했었음.
-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려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북한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포함한 '평양소식', 민요와 아동가요 등 100곡이 수록된 '음악감상', 도서와 미술, 특산물, 상표전시장이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 백두산과 대동강, 역사유적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도 볼 수 있음.
- '려명'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은 세계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통해 이곳에 접속,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의 주요 기사와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 조국통일 주제의 생동한 화보, 화첩들"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손전화용 음악 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봉사들을 더 많이 진행하여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라. 군사 관련

### ● 北사이버전 전담부대 110호연구소(7/10, 연합)

-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이 지목한 북한 인민군 산하의 '110호 연구소'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정찰국'을 일컫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은 10일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로, 이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사이버 관련해서 훈련이 잘된 부대”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110호 연구소, 즉 기술정찰국은 1990년대 초부터 평양 고사포사령부의 컴퓨터 명령체계와 적군 전파교란 등을 연구하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121소(부)를 1998년부터 해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
- 한 북한군사 전문가는 “110호 연구소는 기술정찰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군의 00사단을 00부대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라며 “이 같은 사이버 관련 조직이 110호 연구소 외에도 국가보위부 등에 몇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언
- 110호 연구소 부대원들은 2000년 말까지 해킹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후 2001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사이버전(戰) 임무를 수행, 군사관련 기관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빼내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임무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음.
- 이 부대는 주로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과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짐.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매년 바이러스 전문요원과 기술요원 각 10여명, 일반 컴퓨터 요원 80여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10여명이 110호 연구소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외에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은 사이버전 해커요원 운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문 해커를 다수 보유, 지휘자동화국 산하에는 장교 50~60여명으로 구성된 해킹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이 포진한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

발 중인 56소가 있으며, 이들은 평소 해킹임무에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마. 사회·문화 관련

### ● 北, 보급용 전자피아노, 풍금 개발(7/12, 조선중앙TV)

- 북한 문화성이 최근 숫자식(디지털) 전자음향 분야의 첨단기술로 북한식 대중용 전자피아노 '소백수'와 전자풍금 '장자산'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
- 방송은 이 전자피아노는 조립식에 소비전력 80와트이며 88개의 건반이 있고, 전자풍금은 건반 61개 짜리라고 설명하고 소백수와 장자산이라는 이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해줬다고 소개

### ● 北통신, 집단체조 '아리랑' 8~9월 공연 보도(7/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통신은 이날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과 북한군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처음 공연된 '아리랑'은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선군 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조선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 주체문화예술의 발전 면모를 온 세상에 과시"해 왔다고 밝힘.
- 통신은 또 "창조집단과 출연자들은 작품을 마감단계에서 훌륭하게 재형상(개작)하고 있다"고 언급, 일부 장면이 재창작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북한은 올해 '아리랑' 공연 관람료와 관련해 좌석에 따라 지난해 40~240유로에서 80~300유로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해외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에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월 11일 보도한 바 있음.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결의 위반 비난(7/7,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카나 루군다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언론 구두설명(press remarks)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비난하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언급
- 이날 3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루군다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
-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그러나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음. 이날 발표된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 회의의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발표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P5+2(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주요국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음. 그러나 이 주요국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음.

### 나. 북·미 관계

#### ● 클린턴, 北, 억류여기자 사면해야(7/1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은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사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은 이들 젊은 여성 2명이 북한 법에 따라 사면돼 그들의 가족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리 돌아오는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두 여기자와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의 아닌 과오에 대해 북한이 사면을 통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
-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여기자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

● 美합참부의장, 사이버공격 北탓 돌릴 수 없어(7/10, 자유아시아방송)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민간 기관들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한 서버가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재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DDoS공격은 “비교적 초보적”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언급

● 美월러드 지명자, 北도발에 대응태세 갖춰야(7/10, 연합)

- 로버트 월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지명자는 9일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힘.
- 월러드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지난주 이뤄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이런 도발에 맞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미국내 범정부 차원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최근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도발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권력승계, 한국의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을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음. 이어 그는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미국무부, 사이버공격 모든 대응 강구(7/9, 미국무부)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주요 정부의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켈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과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에 맞서 컴퓨터긴급대응팀과 협력,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와 다른 정부기관이 협력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는 국토안보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
- 이번 사이버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의 추종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켈리 대변인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 재무차관, 홍콩금융관리국 방문(7/9, 연합뉴스)

- 미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려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 규제 당국자들과 만남.
- 사실상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uart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HKMA 관료들과 만났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뤄진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

● 北억류 美여기자, '내가 北 법규 어겨'(7/8, CNN: AP 통신)

-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로라 링이 7일 밤(이하 미국 현지시간) 자신의 언니와 짧은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CNN, AP 통신 등 외신들이 8일 보도
- 링 기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자신과 동료 기자인 유나 리가 북한의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리사는 전언
- 링 기자는 또 자신이 귀양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있으며 몸 상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리사는 소개

● 오바마, '핵 이외에 주권지킬 방법 있다'(7/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핵 이외에도 국가들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포기를 촉구,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핵무기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길로 걸어 가도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언

● 오바마, 강남호 회향, 긍정적 진전(7/7, ABC방송; CBS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금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1호의 북한 회향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의 결과라면서 높이 평가

- 러시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노력으로 북한 선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다”면서 “이는 긍정적 진전(positive step forward)”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2~3년 전이었다면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체제와 관련해 우리는 매우 강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 그는 이어 “북한은 상당히 예측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은 권력 승계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찾아내는 정보는 매우 확실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7일 CBS방송에도 출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어떤 전쟁도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는 “그들(북한)은 미국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빚으면 제압당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투먼-北청진 관광철도 개통 지연(7/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간 최초의 관광철도 개통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째 늦춰지고 있음. 1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 5월부터 운행기로 합

의했던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청진-칠보산을 잇는 북-중 간 관광철도가 지금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투먼과 안투, 단둥 등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만에 재개하면서 북-중간 최초로 투먼-칠보산 간 관광철도를 운행키로 북한과 합의,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지난 5월 북한 내 사무소 설치, 관광 열차 제공, 철도 보수 등에 관광철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 그러나 투먼의 한 여행사는 “협약 체결 이후 철도 운영을 위한 북-중간 구체적인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관광철도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야 하는 북한은 사정이 다급한 반면 중국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며 “철도 보수와 열차 배정 등 기반시설을 전담해야 하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놓고 뒤로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

● 北·中 상호원조조약 48돌 기념연회 개최(7/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는 북한과 중국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8돌을 기념해 10일 평양 옥류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연회에는 북한측에서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전춘식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측에서 학효비 임시 대리대사를 포함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면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

● 中, 자체 대북제재 이행팀 구성(7/10, 연합)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의거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정부 당국자는 8일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제재전담반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를 필두로 중앙은행과 세관, 기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내에서 대북 결의 이행문제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유관부처가 참여, 빠른 시간 내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제재)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6자회담 당사국과 기타 역내 국가들에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는 6자회담의 협상팀이 반드시 제재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우) 6자회담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밝힘.

## 라. 북·러 관계

### ● 러, 北대사에 6자회담 복귀 촉구(7/9, 연합)

- 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이 김영재 북한 대사를 만나 6자회담에 신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 이 자리에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수많은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반도 핵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지난 2일 보로다브킨 차관은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

### ● 러, G8서 북한문제 거론할 것(7/7,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8일부터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7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 아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G8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중동 사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정치적 의제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과 중동 문제를 우선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3 대남정세

- 인천-北 유소년 축구단, 중서 합동 훈련(7/12, 연합)
  - 12일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따르면 축구단 소속 유소년팀과 북한 대표급 유소년팀은 17일부터 18박 19일 일정으로 중국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 홍타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훈련하고 친선 경기를 12차례 벌일 예정
  - 이번 인천-북한 유소년팀 합동 전지훈련은 인천시가 남북 경색을 완화하고 오는 8월에 개최 예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고자 추진, 이에 따라 북한팀의 중국 체재비와 왕복 항공료 등 전지훈련 비용(1억5천만원)은 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예정, 인천팀의 훈련비용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급할 예정
  
- 인천-남포 정기화물선 정상 운항(7/10, 연합)
  -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인천과 남포간을 오가는 화물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항
  - 주 1항차로 '인천-남포'를 오가는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는 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항에 입항, 10일 북에서 신고 온 화물을 내려놓고 북으로 갈 화물의 선적작업을 시작, 이날 화물선을 이용, 북으로 보낼 지원 물자에 대한 출항식도 인천항과 창고 등지에서 열렸음.
  
- 北, 개성접촉 결렬위기, '무의미한 접촉'(7/10,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남북간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남측이 향후 회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네차례의 회담 결과 “우리는 남측 당국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모독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통해 협상의 방법으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
  - 담화는 “남측이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개성회담에 나서

지난 제4차 회담에서 “마침내 대결적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며 특히 제4차 회담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음.

- 이와 관련, 담화는 제4차 회담에서 “남측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발언문을 근 한시간에 걸쳐 목청을 돋구어 읽어내려 간 광경은 과거 파쇼 독재 정권시기 북남대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연상케 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류모씨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남측의 요구를 “생떼”라고 거부
- 담화는 자신들은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남측이 이 모든 노력과 성의를 무시하고 그에 정반대되게 행동”했고 회담장 밖에선 “접촉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이는 남측이 북측에 “책임을 넘겨썩워 공업지구를 깨려는 생각”인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담화는 “이러한 무의미한 접촉은 백번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접촉을 거듭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신이 덧쌓이고 대결감정이 격화되게 될 뿐”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과 공업지구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13-07.19

7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의자에 앉은 채 현지도(7/1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늦게 김정일 위원장의 공장 현지도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조선중앙TV가 14일 내보낸 현지 지도 사진 중에는 그가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보고를 받는 모습은 물론 공장 바깥에서도 다른 수행 간부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공장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주는 장면이 여러 장 포함
- 이날 공개된 김 위원장의 실내 사진 중에는 김 위원장의 앞에 놓인 탁자에 재떨이가 놓여있는 장면도 눈에 띄었음. 10년 넘게 금연을 했던 김 위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무장한 경호원이 파란색 대형 우산을 펴 김 위원장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 다인승 흰색 카트에 다른 몇몇 수행원들과 올라 탄 채 공장안을 둘러보는 사진도 공개

#### ● 김정일 후계, 현 단계에서 제기 안돼(7/13, 연합뉴스)

- 김태중(金泰鍾)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이날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회원들과 평양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김 부부장은 “지금 세계의 언론이 크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국내 각지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등 매우 정열적으로 활동한다”고 언급
- 또 핵실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우리에게 핵을 갖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6자회담에는 두 번 다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스위스 지인들 통해 본 김정운(7/16,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 김정운이 한때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베른 칸톤의 리베펠트-슈타인훔츨리 공립학교에서 그를 만난 지인들의 증언은 김정운은 명석하고 지적으로도 부지런하면서도 농구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승부욕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또 WP는 현재의 김정운의 모습에 대해 정치엔 다소 무관심하고 26세 여느 또래의 관심사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도 인용해 소개
  - 김정운으로 추정되는 '박 운'이란 가명의 학생은 리베펠트-슈타인훔츨리 공립학교에서 1998년 8월부터 2000년 가을까지 수학

## 나. 정치 관련

- 北, 비동맹회의 '한반도 조항' 삭제 함구(7/1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렸던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선언문과 관련, 북한의 입장이 반영돼 왔던 이른바 '한반도 조항'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6자회담이 더는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최종문건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
  - '게스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박인국 주 유엔 대사는 폐막 직후 '한반도 조항' 삭제와 관련해 "한반도 조항에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포함됐었다"며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조항 중 6자 회담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했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저지됐고, 결국 조항 전문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
- 통일신보, 南 해외파병부대는 북침 경험쌓기용(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남한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해외파병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시작전능력을 강화해 북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국방부가 6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

로 한 것은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벌여놓은 북침전쟁준비책동”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미 남조선군부는 평화재건지원의 명목으로 동티모르를 비롯한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새마을운동, 푸른 천사작전 등과 같은 각종 민사작전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할 치안유지와 주민 관리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고 지적, 또 남측이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 평화재건과는 상관이 없는 대규모 장거리 야간 수송작전을 맡아 진행했다며 이는 북침을 위한 군사작전을 숙달해 온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은 “유엔에 대한 그 무슨 공헌과 다국적협력을 통해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무력을 조선 전선에 손쉽게 끌어들여자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상전의 환심을 사는 것과 동시에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노리고 면밀히 타산한 데 기초해 추진되는 반역책동”이라고 비난

● 김영남, 6자회담 영원히 끝났다(7/16, 연합)

-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이집트의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된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주장,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 역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 조평통,李大통령 유럽 순방 발언 비난(7/1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한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도발적인 험담”이라며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머나먼 유럽나라들까지 찾아가 동족대결 망발을 쫓아내(떠든) 것은 그 나라들을 반공화국 핵소동과 제재놀음에 끌어들이고 대북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고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주장

● **상업부문 일꾼회의 개최(7/1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4일 평양에서 광범기 내각부총리와 김봉철 상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부문 일꾼(간부)회의’를 열어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 이 회의에는 만포각 지배인, 중국역 식료품종합상점 지배인, 모란봉구역 칠성문식료품상점 책임자, 신의주시 상업관리소 소장, 만경대구역 종합식당 지배인, 대동강구역 동문국수집 책임자 등과 같이 북한 전역의 상업과 급양부문(요식분야) 간부들이 참석
- 방송은 이 회의의 목적에 대해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끊임없는 선군영도의 길”을 이어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를 가슴에 새기고 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 **량강도 청년비서 탈북(7/14, 오늘의 북한소식, 6/8, 열린북한통신;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 서경식(43)이 최근 청년동맹 자체 검열에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5월 19일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5월 31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북한 당국은 그가 중국으로 탈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를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
- ‘열린북한통신’도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 청년동맹 1비서에 이어 지난달 1일엔 인민보안성 양강도 보천군 보안서장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등 량강도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탈북했다고 6월 8일자에서 보도, 소식지는 6월 22일자에선 청년동맹 비서의 탈북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북한 보안당국이 그가 체포됐다면서 ‘위장 체포국’까지 벌였다고 소개
- 14일 발간된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 중앙당이 청년동맹 1비서의 탈북

책임을 물어 도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비서, 보위 부장 등 수많은 간부들을 6월 17일 무더기 철직해 기관이나 기업소 노동자로 추방했다고 전언

● 노동신문, 올해는 변(變)이 나는 해(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변이 나는 해'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바람, 비약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 해는 사변도 많고 흥분시키는 일도 많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故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 행사로 열린 평양 대동강변 ‘축포야회’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보통강변에서 열린 ‘축포야회’ 등을 ‘변’으로 꼽음. 5월 실시된 제2차 핵실험도 올해의 사변에 포함.
- 노동신문은 현재 진행중인 ‘150일 전투’가 잇따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6월의 사변에는 신창양어사업소에서 철갑상어의 양식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어에 들어간 것도 포함시켰음.

다. 경제 관련

● 北내각, 전력난 해소방안 논의(7/17, 신화통신)

- 북한이 최근 김영일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전력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7일 보도, 신화사는 민주조선의 보도 내용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 오수용 내각 부총리가 상반기 국민경제계획 집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국민경제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양호한 기초를 다졌다”고 올 상반기 북한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
- 김 총리는 이어 올 하반기 새로운 경제 임무를 제시한 뒤 생산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라고 독려하면서 특히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내각에 지시
- 이날 회의에서 내각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생산 정상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기술 혁명을 통해 생산과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결의

● **北상점도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강조(7/17, 연합뉴스)**

- 북한에서 군대가 운영하는 삼일포특산물공장 직영 삼일포특산물상점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인근 병원 면회객들의 수요에 착안한 ‘회용 국수’ 개발 등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본보기’로 떠오르고 있음.
-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7일 개점을 앞둔 이 상점과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을 빛나게 실현한 모범 공장, 본보기 공장”이라고 칭찬한 데 따른 것임.
- 이 상점은 북한에서는 드물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 김 지배인은 “처음에는 손님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한밤중에도 별의별 사람이 찾아온다”며 “야간에는 국수, 술, 맥주 등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 특히 4월 하순부터 ‘15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야식으로 ‘회용 국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 또 개업 초기에는 빵과 아이스크림의 생산은 외부에 위탁했지만 현재는 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춰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술, 꿀, 인단, 껌, 담배 등이 들어있는 조선특산물종합기념세트나 도라지, 더덕, 고비, 고사리, 참나물 등 9가지 마른 나물이 종합된 조선농토산물기념세트도 인기라고 신문은 소개

● **고려항공, 4년째 유럽취항 금지(7/15,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은 북한의 고려항공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항공사의 유럽 취항을 올해까지 4년 연속 금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방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고려항공의 비행기들은 ICAO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올해도 취항승인을 거부당했다”고 보도
- 고려항공은 모두 2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항중인 항공기 10여대는 1960년대와 70년대 취항한 구 소련제 항공기여서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알려짐.

라. 사회·문화 관련

- '단군 유골 발굴' 월북학자 장우진 평가(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단군 유골을 발굴했다는 서울 출신의 월북 인류학자 장우진 박사를 소개하면서 “지난 40여년간을 조선(한국)사람의 기원과 민족형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바쳐왔다”고 평가
  - 신문은 특히 장 박사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유해를 과학적으로 감정하는 사업과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되는 용암속의 인류화석 ‘화대사람’이 가장 이른 시기의 고인화석임을 밝히는 연구에도 참가”했다며 그가 펴낸 ‘조선사람의 기원’, ‘조선 사람의 체질’ 등 약 30권에 달하는 도서는 인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
  
- '반간첩' 영화로 대외 경각심 고취(7/16, 조선중앙TV; 7/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는 16일 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 ‘조난’에 대해 “적들과의 총포성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은 조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평하며 이 영화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소개
  - 북한 언론에 따르면 이 영화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배수리 공장에서 기사(기술자)로 일하는 주인공이 계급적으로 각성돼 반간첩 투쟁을 벌이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
  - 북한은 7월 10일 당과 정부 간부들과 문예·언론부문 종사자, 평양시 간부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문영화관에서 시사회를 가짐.
  
- 평양민속공원 '전통체험' 현장으로 건설(7/16,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 차원에서 평양 시내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성산 기슭에 조성 중인 평양민속공원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노천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조선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이름 지은 이 공원이 다른 나라의 공원과 다른 점은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 시대의 건축물 뿐 아니라

조선(우리나라)의 역사유적과 문화, 풍속에 이르기까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노천박물관의 면모를 갖춘다는 데 있다”고 소개

- 민속공원에는 김일성·김정일 위상화 차원에서 건립된 주체사상탑을 비롯해 인민대학습당, 평양대극장 등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건설된 이른바 ‘기념비적 창조물들’도 축소된 미니어처로 조성되며 그중 170m의 주체사상탑은 수십m의 크기로 재현
- 이밖에 전체 부지가 200여 정보(60만평, 200만㎡)나 되는 이 공원에는 씨름, 그네, 널뛰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구역’, 탈놀이나 민속무용을 보여주는 공연장도 운영할 계획이며 원림구역에는 백두산천지를 중심으로 한 삼지연일대, 구룡폭포를 중심으로 한 금강산의 풍치도 그대로 조성할 계획

● ‘백두 혈통 철리’ 영화 적극 보급(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지난 6월 초 만들어진 예술영화 ‘백두의 봇나무(자작나무)’가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길에 조선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감명 깊게 보여줌으로써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하는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소개
- 통신은 15일 열린 이 영화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토론자들이 이 영화의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하고 “영화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는 다름 아닌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이며 선군시대 청년들의 사명은 혁명적 전통을 옹호고수하는 선봉투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고 토론자들이 말했다고 소개
- 통신은 이어 “연구모임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조선노동당의 문예사상과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백두의 봇나무’가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려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 데 대해 강조했다”라고 덧붙여 앞으로 이 같은 류의 선전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것임을 밝힘.
- 이 영화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이 백두산 혁명전적지 강사로 자원해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음.

● 조선중앙TV, 김정일 2월 현지지도 기록영화 방영(7/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강원

도, 자강도 등의 “수십 개 단위”를 현지지도한 장면들을 편집한 약1시간 분량의 기록영화를 15일 오후 6시 방영

- 이 영화에서도 두터운 외투차림의 김 위원장은 4월 7일 방영된 영화에서처럼 왼팔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간혹 박수치거나 손을 마주잡을 때만 들어올리고 대부분 오른팔만으로 지시를 하거나 지시봉을 잡았으며, 두 세걸음 걷는 것 외엔 와병 이전처럼 활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 하지만 수행원이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특유의 다변적인 자세로 비교적 힘있게 뭔가를 말하거나 웃음 띠는 표정 위주로 편집
- 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 현지지도 대목에서 그는 생모인 김정숙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서 막 생산돼 나온 담배 한갑을 그가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두 손으로 이리 저리 만져 보던 중 수행원이 담뱃갑을 열어주는 장면과 곧이어 그가 담배 한개피를 피우는 모습이 나옴. 김 위원장이 왼손으로는 물건을 잡거나 집을 수 없기 때문에 수행원이 담뱃갑을 열어 한 개비를 꺼내준 것으로 보임.
- 또 2월 6일 함경남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을 향해 공연자들이 두 팔을 들어 올부짚으며 환호하는 모습도 담겼으나, 현지지도 장면 대부분에선 현지 일반 주민이나 공장 직원들이 단체로 김 위원장을 맞는 모습은 없이 관계자 수명이 김 위원장을 빙 둘러 선 채 저마다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많았고, 군인들이 뒤편과 바깥에서 경호를 서는 장면도 간혹 카메라에 잡힘.

● 김일성대, 본교사를 전자도서관으로 개축(7/16,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본교사 건물이 새로 지어져 2010년 4월까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신문은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본교사가 지난 3월 19일 이 대학 수영관을 현지지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본교사 ‘개작’ 지시로 전자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됐다고 설명
- 신문은 “현재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본교사를 완전히 허물고 잔해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 그러나 이 건물이 김 위원장 뿐 아니라 그의 부모인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 등의 “영도업적이 깃든(역사

적 건물”인 점을 감안, 새 건물도 외관은 종전 본교사를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고 설명

● 北, 홍수피해 예방대책에 총력(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장마철 시작을 알리면서 “나라에서는 해마다 장마철이 오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경제부문별 역점사업을 소개
- 전력공업부문은 수력발전소의 “언제(댐)와 도중취수구를 비롯한 수력구조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통해 “장마철에도 전력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갯들의 배수설비들을 점점 보수하거나 보강해 침수를 방지하고 있고 캐낸 석탄과 광석들의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유엔, 대북 제재 北 기업·인물 확정(7/18,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조선원자력총국장 등 5명의 ‘개인’과 남천강무역회사 등 5개 ‘단체’,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를 대북 타깃리스트(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
- 북한 정부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 원자력총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의 ‘컨트롤 타워’임. 총국은 연료 구조물과 재처리시설뿐 아니라 영변 핵연구소와 플루토늄 원자로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남천강 무역회사는 원자력총국 산하의 무역회사로 북한 핵 설비시설에서 확인됐던 일본산 진공 펌프 취득 과정과 독일에서 핵 관련 물질을 구입한 사건 등에 연루돼 있으며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농축우 알루미늄 튜브와 다

른 장비들의 구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홍콩 일렉트로닉스는 이란의 키시 섬에 기반을 둔 회사로 기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단천산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핵 관련 자금들을 취급해 왔고, 수백만 달러의 핵 확산 관련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조선 용봉총회사에 소속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돼 있고,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의 획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리제선은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1997년부터 핵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원자력총국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제10·11기 대의원이기도 함. 황석화는 원자력총국에서 핵프로그램 책임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 윤호진은 남천강무역회사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책임을 맡아 왔으며, 리홍섭은 전 영변 핵연구소 소장으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지원하는 3개 핵심 시설을 관장하고 있음. 한유로는 조선용봉총회사의 간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개입

● 伊경찰, 김정일 구매 요트 2척 압수(7/17,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의 한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요트 2척이 현지 세무 경찰에 압수됐다고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
- 리베로뉴스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루카 지역 세무 경찰이 북한에 대한 국제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시의 한 조선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두 척의 요트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두 척의 요트 가격은 1천300만 유로(234억원)라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두 척의 요트 주문과 관련, 최초 계약자가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의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추적한 결과, 오스트리아 당국의 보고로 돈의 흐름이 요트의 실제 고객인 김정일 위원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리베로 뉴스는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호화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채널들을 규명하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압수된 요

트는 경매에 부쳐 매각될 것이며 중국측을 통해 지급된 북한 정부의 대금도 압류됐다고 소개

## 나. 북·미 관계

### ● 美의회, 여기자 석방결의안 표결 연기(7/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의회가 국무부의 요청으로 북한에 억류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방송은 의회 관계자를 인용, “의회가 이번주 여기자들의 조기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국무부로부터 현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
- 미 국무부가 의회에 결의안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기자들의 사면을 북한에 요청하고 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지난주 국무부와 조율 아래 방북, 여기자 문제를 논의한 때와 맞물려 있다고 방송은 설명

### ● 美, 대북금융제재 쉰 세계은행에 영향(7/16, 연합)

-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의명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유엔 결의 1874호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같은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거래 본질을 속이는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조항”이라고 언급
- 은행들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거래이든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에 관계된 것이든 불법적인 거래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엔 결의 1874호는 “전 세계 은행들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그는 설명
- 이 관계자는 최근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미국 대표단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이러한 대북 금융제재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노력”이라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美, ARF서 북과 별도 접촉 계획없다(7/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오는 22-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개별 접촉을 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힘. 스콧 마르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도, 태국 방문과 ARF 참석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ARF에서 북한관리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언급

● 클린턴, 北비핵화에 더욱 터프한 노력경주(7/15,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간의 더욱 강력한 공동 노력이 있을 것임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에서 행한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더욱 터프한 공동 노력이 장기적 결과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북제재를 이끌기까지의 과정을 소개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와 포용정책의 외교 기조와 관련, “우리의 대화 의향은 (우리가)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다”면서 “필요할 경우 세계 최상의 군을 통해서라도 우방과 우리의 이익, 우리 국민을 강력히 지킬 것”이라고 밝힘. 그는 ‘스마트파워’를 사용한 외교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원칙에 의거한 포용정책 추진 방침도 확인

● 美동아시아 차관보, 北-미얀마 협력 우려(7/14, 자유아시아방송)

- 커트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초 의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미얀마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다”며 “(미국은)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미얀마의 핵 개발 지원국으로 러시아와 북한을 꼽음. 그는 “러시아와 미얀마가 2007년 5월 15일 미얀마에 10MW짜리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포함한 핵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수백 명의 미얀마 과학자가 러시아에서 (핵 관련) 훈련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 미얀마 간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해 미얀마의 핵 개발을 위한 어떤 외부 지원도 세밀히 관찰하겠다”고 언급

#### 다. 북·중 관계

##### ● 中, 北거부에도 6자회담 추진 강조(7/16, 연합)

-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에도 “6자회담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남 위원장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요구받자 “유관 당사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중국은 당사국들이 이 약속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 6자회담을 추진하고 한단계 더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강조
- 친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추가적인 긴장국면 조성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유관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이라고 언급

##### ● 고려항공, 평양-상하이노선 신설(7/16, 해방일보: 신문신보)

- 16일 중국 해방일보(解放日報)와 신문신보(新聞晨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의 책임자는 “고려항공이 평양-상하이 직항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검토와 유관 기관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이 책임자는 이와 함께 “평양과 항저우(杭州)를 오가는 특별 전세기의 운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
-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와 별도로 평양에서 칭다오(靑島)를 연결하는 특별 전세기도 조만간 운행할 예정

##### ● 中, 유엔결의 중시, 北도 예외없어(7/14, 연합)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 왔다”면서 “북한 문제에서도 이는 예외 일 수 없다”고 언급

- 친 대변인은 북한 핵 관련 인사 15명에 대한 제재 방안에 중국이 최근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음.

● 北학생소년예술단, 중국 공연 시작(7/14, 연합)

- 북한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13일 북·중 수교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베이징의 국가대극원에서 1천여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춤과 노래를 위주로 공연을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중국대외우호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이 예술단은 오는 29일까지 산시(山西)성,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텐진(天津) 등을 돌며 순회공연을 함.

라. 북·일 관계

● 日, 북핵 6자회담 3원칙 책정 방침(7/16, 마이니치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 어프로치’ 3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6일 보도
-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신 어프로치에서 북한이 핵폐기 조치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 벌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중유 지원 등 대가를 세분화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보도
- 이 3원칙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관계국들로 부터 이해를 구했으며,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도 이를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日, 北선박검사 특별법안 사실상 폐기(7/15, 연합)

-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위해 추진 하던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은 앞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한 뒤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짐. 임시국회도 이달 28일까지 열게 되어 있으나 아소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폐막된 상태임.

## 마. 기타 외교 관계

### ● 김영남, 비동맹회의서 '정상 외교'(7/17,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국 정상 및 외무장관들과 활발히 회동하면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로서 정상외교를 펼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7월 16일 이번 회의 주최국이자 차기 비동맹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만나 담화,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이집트 측에서 대통령관방실 공보비서가 동석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마다브 쿠마르 네팔 총리와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회동, 그는 앞서 14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을, 15일에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카싯 피롬 태국 외무장관 등을 각각 만남.
- 한편 김 상임위원장은 15일 NAM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며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차 확인

## 3 대남정세

### ● 北매체, 개성공단 미래는 南에 달려(7/1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8일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과 공업지구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

오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공화국이 관련 법규를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개정하면 그만”이라며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남측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협상안까지 제시해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줬다”고 주장
- 신문은 또 “공화국의 동포애적 조치에 의해 추진돼온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에서 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출구’였다”며 “그러나 지난 실무접촉의 과정이 보여준 것처럼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권은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운명에는 아랑곳없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술책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북남관계 파괴를 넘어 남조선의 ‘중소기업 죽이기’ 책동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 강원도, 금강산 잣나무 방제약품 8월달 지원(7/16,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강원 간 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북한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을 방제하기 위한 약품 등이 8월달 북측에 지원될 전망,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위한 대북접촉을 통일부에 요청한 결과 최근 방제 약품 및 기자재 반출을 승인받음.
- 이에 따라 도는 3억원 가량의 방제 약품과 초미립 분무기 등의 기자재를 내달 북 강원도에 전달해 금강산지역의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작업을 지원, 도가 그동안 금강산지역에서 실시한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작업 규모는 각각 1천600ha와 6천100ha에 달함.

● 54억 투자한 신발업체, 개성공단 철수(7/15, 동아일보)

- 개성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기업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 A사는 지난 6월에 철수한 스킨벳처럼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억 원을

투자해 땅을 분양받고 공장을 세운 기업임.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철수 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남북 경협보험을 적용받아도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해 지금껏 철수 결정을 내린 기업은 없었음.

● **평화자동차, 이익금 6억 국내로 첫 송금(7/15, 동아일보)**

- 자동차 조립생산업체인 평화자동차 평양지사가 2007년 처음으로 이익을 내 최근 이익금 6억4000여만원을 한국 본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북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익금을 한국에 들여온 것은 처음임.
- 평화자동차 측은 “지난해 북한에서 승용차와 소형 버스 652대를 판매해 벌어들인 이익금 50만 달러(약 6억4500만원) 중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49만8228 달러(약 6억4300만원)가 5월 말 본사 계좌에 입금됐다”고 이 신문에 밝힘. 이 회사는 1998년 남북 경제협력(경협) 사업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6% 증가하면서 첫 이익을 냄.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제외하고 남북 경협에 따라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평화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2개,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 분야 6개, 서비스 분야 1개(국양해운), 서평에너지 등 지하자원 분야 3개를 합쳐 모두 12개임.

● **北, 6월 개성공단에 인력 700명 추가공급(7/13, 연합뉴스)**

-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헛바퀴를 도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지난달 개성공단 후발업체들에 인력 약 700명을 새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의도가 주목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7.20-07.26

7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 재개(7/24, 연합뉴스)
  - ‘북한이 질병을 앓고 있는 김정일의 후계 옹립을 위한 미묘하고도 일관된 선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가 분석, 북한이 8년 전 처음 시작한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을 지난해 재개했으며 이제 그 작업의 초점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26)에게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
  -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가 올해 5월 6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후계자 옹립 작업의 본격화가 2012년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최근의 신호들은 몹시 미묘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또 지난 2월 북한의 한 TV방송 보도에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막내가 사회주의 원칙에 투철하다고 강조”하는 등 김정운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지적
- 김정운 칭송가 주민에 보급(7/24,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을 칭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래가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불리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방북 기간 여러차례 이를 직접 들었음.
  -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우리 김대장의 발걸음, 힘차게 한번 내딛으면 전국의 산하가 반기네”라는 등 김정운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北TV, 김정일 3월분 기록영화 방영(7/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희천발전소 등 주요 경제시설을 현지도한 기록영화를 22일 오후 6시 방영, 40분 분량의 이번

3월분 방영은 지난 7월 15일 2월분 방영에 이어 7일만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 현지에서 지도 (주체 98.3)'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번 기록영화도 그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목표 기한의 절반을 지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150일 전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 영화에서도 두터운 외투차림의 김 위원장은 왼쪽 팔과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한두 걸음 걷는 것 외엔 지난해 8월 와병 이전만큼 활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
- 특히, 3월 19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시찰 대목에선 네 걸음정도 떼는 동안 왼쪽 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저는 모습이 포착됐고 모자를 벗은 머리의 술도 상당부분 들성들성해 보임.

## 나. 정치 관련

### ● 김영춘, 제국주의와 대결전 계속 중(7/26,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6일 정전협정 체결 56주년(7.27)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미·반제국주의를 강조
- 그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미국과 남한, 일본의 “반공화국(반북) 제재 소동과 군사적 도발 책동”에 의해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우리는 적들의 제재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한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도발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력한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통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

### ● 北, 북핵문제는 철두철미 북미대결(7/26, 노동신문)

- 7월 23일 태국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박근광 북한 대표단장(외무성 순회대사)은 “우리를 핵무장으로 떠민

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의 핵대결도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

- 박 대사는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이번 (북미) 대결의 발단이 된 것인 만큼 반드시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한·미 을지연습 계획 비난(7/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계획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 계획”이라며 이는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 **조평통, 南통일백서 첫 비난(7/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남한의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9 통일백서’에 대해 “통일이라는 간판을 도용한 반통일 문서”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발표, 통일부가 백서에서 작년을 “남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기”로 평가한 부분에 언급,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 실태를 왜곡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주장

● **총탄 한발 바치기 운동 전개(7/2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7월 들어 미국 등과의 ‘사투’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이 총탄 한발을 바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 국민에 철제품 등을 헌납하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
- 신문은 이 운동이 김일성 사망 15년이 되는 7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모두가 육탄이 돼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모든 반동파와의 사투를 결의하자!”라며 “10명이 대포 한 발! 1천명이 미사일 한 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신문은 “북한 주민은 즉시 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바치는 초등학생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탄 몇 발을 바쳤느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

● 식료일용공업성 신설(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정령을 통해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한다고 발표, 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1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일용공업성을 내온다”고 짚막하게 전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다. 경제 관련

● '150일 전투'에 전업주부도 동원(7/23, 조선신보)

-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150일 전투'가 북한에서 '가두녀성'이라고 불리는 전업 주부들까지 '자원' 형식으로 노동현장에 동원
- 조선신보는 23일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열기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일에 전념하던 여성들의 일과도 바꾸어 놓았다”며 “조선민주여성동맹이 가두녀성들로 돌격대를 구성하고 중요 경제단위와 건설장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
- 여성동맹이 구성한 돌격대라는 점에서 '녀맹돌격대'로 불리는 가정주부 돌격대는 도, 시, 군별로 조직돼 평양시 가정주부들은 자강도 희천시의 희천발전소 건설장 등에 투입되는 등 북한 전역의 주요 건설장에 동원돼 7~10일 정도 노동지원 활동을 벌임.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완공된 원산청년발전소 현지지도 때 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 강원도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녀맹돌격대'가 큰 역할을 했으며 높이 평가했다고 전함으로써 150일 전투에 가정주부들을 동원하게 된 배경을 시사, 신문은 “강원도에서 창조된 '녀맹돌격대' 활동은 150일 전투를 계기로 전국에 일반화돼 가고 있다”고 소개

● 정규사단도 김매기 동원(7/21,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농번기철을 맞아 정규사단 군인들까지 동원해 김매기 등의 농촌 일을 돕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1일 보도, 또 “지난 6월 25일부터 황해남도 연안군과 배천군, 청단군 등 연백벌을 비롯한 농장들마다 군인들이 파견 나와” 있다며 “대부분 4군단 정규군 현역 사단과 연대들”이라고 설명

## 라. 군사 관련

### ● 北, 미사일 엔진 등 지하서 분산 생산(7/24, NHK)

-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과 첨단 부품을 평양 북부에 위치한 복수의 지하시설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24일 보도
- NHK는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면서 미사일 개발의 실태를 외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하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
-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엔진 부분을 수도 평양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평안북도 박천 근처의 지하시설에서, 또 탄두 부분은 박천의 북쪽에 위치한 군수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마. 사회·문화 관련

### ● 평양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7/25, 조선신보)

- 평양 금성네거리에 6월 초 ‘속성음식 센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문을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소개
- 신문은 이 가게의 “협조대상”이 “워홀(외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싱가포르측은 설비만 제공하고 노력과 음식의 원자재는 모두 조선(북)측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식 패스트푸드점’인 점을 강조
- 가게의 차림표는 햄버거 대신 ‘다진 소고기와 빵’, 와플 대신 ‘구운빵지짐’이라는 표현, 다른 메뉴는 100% 광어로 만든 ‘다진 물고기와 빵’,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남새(채소)와 빵’이 있으며 ‘다진 소고기와 빵+감자죽+김치’로 된 ‘정식’ 메뉴도 있다. 음료는 “각종 탄산물”과 ‘금강생맥주’를 제공, “인민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된 음식 가격은 다진 소고기와 빵이 190원(1.2유로), 금강생맥주가 76원(0.4유로) 선임.
-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며 20대 여성 위주의 종업원 15명은 요리와 서빙을 함께 함.

● 北 신종플루 발생보고 아직 없어(7/2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북한에서 인플루엔자 A(H1N1, 신종 플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신종 플루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WHO는 북한에서 신종 플루가 발병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했음,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보건성 등은 신종 플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과 주민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최대 안과병원, 이동치료 활발(7/24, 조선신보)

- 북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인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의 의사들이 '이동치료대'를 구성, 북한 전역을 돌며 환자 치료와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소개
- 병원 류은희(48) 원장에 따르면 의사들은 2006년부터 이동치료대를 구성,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공장, 기업소와 마을을 찾아 지난 3년 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과 일반 안과 치료를 해줌.

● 최승희 창작무용 50여년만에 복원(7/23, 조선신보)

- 북한이 일제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의 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50여 년만에 복원, 2010년 재연할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신문은 "1956년에 최승희가 창작한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가 50여년 만에 재연된다"며 북한 무용 관계자들은 이를 "조선무용을 세계적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릴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개, '사도성'이라는 성에 쳐들어온 왜적들에 대한 백성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 싹튼 성주의 딸과 한 어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사도성의 이야기'는 4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무용극으로 최승희가 대본, 안무, 연출을 도맡았었음.
- 조선무용가동맹 홍정화 서기장은, "발레 분야에는 무용극 작품이 많지만 민족적 춤가락만을 놓고 무용극을 만든 '사도성의 이야기'는 세계적 견지

에서 보아도 희귀한 작품”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평가

● **北집중호우 피해 없어(7/22,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20일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핀 야로 로드 평양사무소 소장이 밝힘. 로드 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주 평균 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이번 주에는 북한 당국이 평양 외곽에 있는 댐의 물을 방류해 대동강이 약간 범람하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소개

● **北노동자들 ‘솜옷에 물뿌려’ 방화복 대신(7/21 연합; 조선신보)**

- 북한은 지난 4월 하순부터 펼치고 있는 대중 노력 동원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초인적 노력, 자기희생 등의 사례들을 적극 선전하고 있음을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평양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두터운 솜옷에 물을 끼얹은 ‘방화복’ 차림으로 섭씨 300도의 보일러 속으로 뛰어든 얘기도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오스트리아, 北호화요트 사건 수사(7/25, 연합)**

- 오스트리아 검찰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화요트 구매 사건과 관련,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인 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검찰 대변인은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 국적자로 보이는 한국인 1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는 오스트리아인을 중개인으로 삼아 이탈리아에서 호화요트와 자동차를 주문한 것에 대한 수사”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경찰 소식통을 인용, 이들 요트의 가격이 1천300만 유로(한화 234억원)에 달하며 산업 스파

이 활동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보도

● **日, 핵 관련 北기업 자산 동결(7/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라 북한의 핵 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 관리 등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
- 출입국 금지 대상자는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 등으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입국 및 일본 경유 제3국행을 금지, 자산 동결은 핵 관련 기업인 남천강무역 등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자산이 일본 내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스위스, 대북 금지품목 금융서비스 금지(7/22, 미국의소리방송)**

-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1일 제재강화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대북 금지품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스위스 정부는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 맞춰 후속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발표한 시행령의 부속서를 개정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인물과 기업, 기관들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담을 계획

**나. 북-미 관계**

● **北, 美에 직접 대화 타진(7/26, 산케이 신문)**

-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미국과 대립해온 북한이 뉴욕 유엔대표부를 창구로 하는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에 직접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
-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북한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안이하게 대가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신문은 보도

● 유엔주재 北대사, 美와 양자대화에 관심(7/25,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과 양자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24일 밝힘. 신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어떤 교섭에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 그는 그러나 “6자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우리는 6자 회담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 신 대사는 또 북한이 계속 유엔 회원국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말에 “절대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답해 북한이 자국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서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힘.

● 美합참의장, 대북 압력 계속될 것(7/25, 연합뉴스)

-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4일 북한이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멀린 합참의장은 미 국방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핵무기 없는 북한을 만드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목표”라면서 “그런(북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이어 미사일방어망의 일환으로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등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괜찮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과 같은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을 그곳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 클린턴, 국제사회 北제재 적극 동참에 놀라(7/23,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놀랐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 또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보유로 비롯한 군비경쟁이 시작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불안해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

● **클린턴, 北 엇박자 유감, 단호히 제재(7/2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태국 푸껫 쉼라톤 호텔에서 열린 ARF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과거 북한이 국제회담에서 강경발언을 하면 지원이 주어지곤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

● **北외무성, 클린턴에 '그 여자', '소학교 녀학생'이라고 비유(7/23,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그 여자"라고 부르고 "때로는 소학교 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당에나 다니는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험담  
 - 클린턴 장관이 최근 북한을 "관심 끌려고 보채는 꼬마이자 철부지 10대" 등으로 비하한 데 대한 응수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서 "미 국무장관이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맞받아 쳤음. 대변인은 첫 머리에선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칭하였으나 후반부에선 "횡설수설하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우리는 우습게 보고 있다"고 말하거나 "소학교 녀학생",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 등으로 낮춰 비유

● **美국무부, 北비핵화시 새 인센티브도 가능(7/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대북협상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잇달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관리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이전의 보상과 함께 새로운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은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국무부 관리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시작한다면 이전과는 새로운 인센티브, 즉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

브에는 이전에 제안했던 보상도 유효하지만 여기에 다른 보상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새롭게 제공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소개, 그러나 관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밝기 전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 美국무부, 北, 불량자로 남을지 결정해야(7/22, 연합)

- 미 국무부는 22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량자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설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우리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의 종식을 약속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포괄적인 유인책과 기회들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기회라는 측면에서 봐서 (북·미간) 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고 밝힘.

● 美정보국장, 사이버 공격 주체 추적 중(7/23, 연합)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2일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의 인터넷 망을 마비시킨 7월 초 사이버 공격의 주체와 관련, “아직도 추적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
- 블레어 국장은 미 상공회의소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4일을 기해 감행된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

● 美, 北권력승계 대비 다양한 계획 보유(7/23, 연합)

-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22일에 밝힘.
-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태평양사령부)

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답변  
 - 키팅 사령관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및 권력승계에 따른 미국의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김정일)가 통치권을 이양하거나 더 이상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언급

● 美상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7/23, 연합)

-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요구  
 -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 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무화됨.

● 美태평양사령관, 北관심선박 추적 지원(7/22, 연합)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관심있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수상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인 추적 방침을 밝힘.

● 北화물선 담배 밀수 혐의 나포(7/22, 연합)

- 담배 밀수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이 키프로스 당국에 의해 나포됨  
 - 키프로스 해안 순찰선은 21일 키프로스 동쪽 해상 16km 지점에서 담배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을 나포

● 美여기자석방, 北과 다양한 채널로 대화(7/21,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21일 북한이 억류 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뉴욕의 유엔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왔다”면서 “북한과는 뉴욕을 포함해 대화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고 언급

- 클린턴, ARF서 '北과 대화 계획없음'(7/22,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태국 방문에 앞서 인도 뭍바이에서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국제회의에 이란이 참석했으나, 나는 그들에게 얘기를 걸지 않았고 그들도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여기자 석방 매우 희망적(7/20,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에 억류중인 여기자 문제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 북·미간 물밑 접촉이 모종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

#### 다. 북·일 관계

- 北, 日총리 가문 '과거범죄' 보고서 발표(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2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조상이 세운 아소 탄광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한국인을 연행해 강제노동에 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소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죄,배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협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아소 가문이 조선에서 다량의 목재와 금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약탈해 갔을 뿐 아니라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공모하여 1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강제 연행하고 혹사"시켰다며 그 실태를 자세하게 밝힘.

#### 라. 기타 외교 관계

- 北, 에티오피아에 의료진 파견(7/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교육을 위해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진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RFA는 에티오피아 보건국의 공보 관계자를 인용, 총 32명의 의료진 가운데 27명이 지난 21일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오로미아, 티그레이 등 각 지역의 병원에 배치돼 환자를 돌보고 에티오피아 의료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힘.
- 북한의 의료진 파견은 양국이 맺은 의료 협력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북한 의료진은 앞으로 2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물면서 보건 의료 분야를 지원, 또 조만간 5명의 북한 의료진이 추가로 에티오피아에 도착할 예정
- 하지만, 의약품이나 기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고 '오직 북한의 의료 인력만 지원받게 된다'고 에티오피아 보건국 관계자는 소개

● **주북 이집트대사 연회 개최(7/24,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혁명 57돌에 즈음해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가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연회에는 조선(북한)-이집트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용진 교육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주북 각국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음.

● **北, 泰에 ARF 회담 지원 요청 (7/22, 방콕 포스트)**

- 북한은 23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사일 및 핵 실험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콕 포스트가 22일 보도
-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를 대표로 한 북한 대표단은 22일 오후 태국 푸껫에 도착한 직후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을 면담, 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3 대남정세**

● **남북, 겨레말큰사전 본격 집필 합의(9/25, 통일신보)**

-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 18차 회의가 지난달 열려 본격적인 사전 집필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통일신보가 25일 보도

- 통일신보는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준비해온 어휘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본격적인 사전 집필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양측은 앞서 지난 16, 17차 회의에서 시범 원고를 제출했다고 소개
- 사전에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수집한 어휘자료 가운데 양측이 공통으로 쓰는 것을 우선 올리고, 차이나는 것은 합의한 후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올릴 것이며, 올림말에선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정보 제공,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2년까지 사전 집필을 끝내고 2013년에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

07.27-08.02

7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7/30,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63주년을 맞아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 위원장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방적종합직장, 편직사직장, 염색종합직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화된 공장시설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방송은 소개
  -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는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일에 맞춰 의도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평양방직공장을 방문,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현지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정전협정 56주년 공연 관람(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7.27) 56주년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고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냈으며, 합창단의 훌륭한 공연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군고위 간부들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당 중앙위 부장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당·정 고위간부들이 수행
  
- 김정일 혈액 투석 치료 중(7/30, 평화방송)
  -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당뇨성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에 크게 문제가 생겨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씩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중국방문 당시 체중이 빠진 듯 보이나, 손이 크게 붓고 탈모가 진행된 모습이 촬영돼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음.
- 하 대표는 이어 건강 문제로 김 위원장이 자신감을 잃어 후계자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올 초에는 김정운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5월 핵실험 이후부터 군대와 당 조직을 중심으로 김정운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당과 군으로 확산됐다”고 설명, 하 대표는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일의 파워가 100이면 지금 김정운의 파워는 한 20정도’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언급

## 나. 정치 관련

### ● 노동신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공포 경계(8/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일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내부 와해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은 생사를 결정하는 판가리(판같이) 싸움”이라면서 “제국주의에 굴복하면 노예가 된다”고 지적하고 “사생결단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높은 사상적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는 동시에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의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것을 요구

### ● 연안호 나포 사흘째에 보도(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800연안호'의 나포 사실을 나포 사흘째인 1일 뒤늦게 보도, 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함이 7월 30일 동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침입한 남측 선박 1척을 나포했다”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특히 연안호가 “영해 깊이 불법침입했다”고 강조, 북측은 7월 31일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현재 연안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

●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 려원구씨 사망(7/31, 조선중앙통신)**

-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려원구(81)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의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통신은 그러나 려 의장의 구체적인 사망 일시와 사인 등은 밝히지 않음.
- 려 의장은 1928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운형 선생의 셋째 딸로 태어나 1946년부터 8년간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교육부 차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국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 그는 2002년 남한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 언니인 려연구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등을 지내고 1996년 9월 사망

● **강반석 사망 77주년 헌화행사 개최(7/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모인 강반석 사망 77주년을 맞아 31일 칠골혁명사적지 동상과 만경대 묘소에서 헌화행사가 열렸다고 중조선양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北TV, 南화면 편집해 “南 비참” 선전(7/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29일 저녁 남한 방송사 프로그램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담은 장면만 골라 편집해 10분 정도 화면을 방영하면서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다”는 식으로 선전
- 조선중앙TV는 ‘위기의 남조선, 비참한 민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연합뉴스 인터넷방송을 비롯해 KBS, MBC, SBS, YTN에서 방영한 동영상들 가운데 실업난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생활, 버림받는 노인, 노숙자, 용산 참사, 의료비 문제, 교육비, 개인 부채문제, 자살문제, 연쇄살인 사건 등을 다룬 화면만 편집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
- 중앙TV의 내레이터는 “오늘 남조선 경제는 세계적인 원유파동,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동란에 휘말려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해서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다”며 프로그램을 시작, 이 방송은 남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가운데 인터뷰 대상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방송의 금기어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북한 안방에 전달되는 것도 감수

● 北, 정전협정 56주년 다채로운 행사 개최(7/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56주년을 맞아 27일 다양한 행사를 개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평양시내 당창건기념탑과 4.25문화회관 광장 뿐 아니라 평안북도 신의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자강도 강계시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됨.
- 조선중앙통신은 무도회가 故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고”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따라 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할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주장
-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도 이날 정전협정 체결 56주년을 맞아 “인민군 영웅열사묘”를 찾아 헌화
- 조선중앙방송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56돌에 즈음해서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27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을 찾았다”고 소개,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에도 이날 많은 북한주민들이 찾아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은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육해공군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조선중앙TV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 인사들이 출연한 가운데 ‘천출명장 높이 모시어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영원하리’ 제목의 방송모임을 개최

● 北외무성, 북핵 해결 대화방식 따로 있다(7/27, 북 외무성)

- 북한 외무성은 2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6자회담 복귀 종용에 대해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를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 것부터가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언급
- 대변인 담화는 7월 23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

관 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을 가리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6자회담 불참 배경을 설명

- 답화는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하여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회담”인데 지난 4월 북한이 “평화적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의 생명이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
- 답화는 “이로써 6자회담은 우리의 평화적인 과학기술개발까지 가로막아 정상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억제하는 마당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로 근근이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고 주장
- 답화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까지 백주에 강탈하려드는 무모한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사태는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거듭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탓하며 맺음.

#### 다. 경제 관련

##### ● 北 경제재생 분야별 수치목표 전 당원에 통보(8/2,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67)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 이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고 유력 후계자로 부상한 3남 김정운(鄭雲·26)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제재건 캠페인 ‘150일 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5월에 시작된 150일 전투 개시 2개월 전에 분야별 달성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만들어 전 당원에게 지시, 그러나 4, 5월 들어 로켓 발사 및 핵실험 때문에 대외관계가 악화한데다 북한 내부의 인프라 노후화 등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이들 목표의 달성

- 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
- 신문은 “경제목표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한 비밀 취급 문서 ‘전 당원에 보내는 비밀 편지’에 기재돼 있다”며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자는 ‘당 본부가 전 당원에게 구체적인 달성 목표 수치를 알리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전언
- ‘경제 전선의 당면 기본 전투목표’로 ①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송)에 힘을 집중해 경제 전반을 상승궤도에 올린다 ②식량 문제 완전 해결 ③국가 경제의 기술집약형으로의 전환 등을 열거, 그리고 4대 선행부문에 대해서는 전력 776만kw 생산능력, 석탄생산 3,500만t 수준, 철도 화물 수송능력 7,320만t 수준 등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 식량의 경우 곡물로 올리는 600만t, 그 이후는 700만t이라는 목표를 제시

● 北, 기초식품 공급 전산화, 자동공급기 보급중(8/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조선(북한)의 상점 경영에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봉사의 세부 업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 업무를 맡은 칠성문식료품상점이 컴퓨터로 조작하는 ‘기초식품자동봉사기’를 이용해 간장, 된장, 기름, 달걀, 고기 등 기초식품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
- 故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4월 15일 칠성문식료품상점에 첫 도입된 이 기초식품자동봉사기는 북한 전역의 모든 식료품상점들에 보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과거엔 주민공급대장에 세대수와 세대별 연간 배급량, 이미 배급한 양과 앞으로 공급할 양, 배급가격과 공급날짜 등을 기록했으나 전산화를 통해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기초식품을 ‘자동저울’로 달아 “신속·정확히” 공급한다는 것

● 北 첫 패스트푸드점, 지점 개설계획 밝혀(7/30, APTN)

- 북한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평양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어 조만간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삼태성의 지배인이 30일에 밝힘. 삼태성의 고종욱 지배인은 이날 APTN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음식점은 시민들 및 외국인들 사이

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차 (평양) 시내 여러 곳에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

● ‘광물수출’ 단천항 현대화에 박차(7/30, 평양방송)

- 북한은 29일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단천항을 “현대적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궤기모임을 갖는 등 단천항 개발에 본격 나섰다. 단천은 연.아연 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광산지구로, 단천항 현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29일 현지에서 열린 궤기모임엔 장관급인 라동희 육해운상이 참석해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이미 2차례 단천을 시찰하고 단천항 현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단천항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었음.

● 고립된 北, 믿을 곳은 중국, 무역 급증(7/30, 연합뉴스)

-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다둥(大東)항 세관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71만8천t(무역액 9천617만6천 달러)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1.9% 증가(무역액 268.4% 증가)했음.
-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 화물은 70만1천t(6천716만 달러)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8%(무역액 306.1%) 증가했으며 대북 수출 화물은 1만7천t(무역액 2천901만6천 달러)으로 550%(무역액 206%) 늘었음.
- 북한에서 반입된 상품은 무연탄과 철강재가 주종을 이뤘음. 무연탄 수입액이 4천62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8.5%를 차지했으며 철강재가 598만9천 달러(8.9%)로 뒤를 이음.
- 대북 수출품은 기계류가 1천436만9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00% 폭증했고 옥수수과 쌀 등 농산품도 1천144만2천 달러를 기록, 40.2% 증가
- 중국 개인기업의 무역액이 8천572만2천 달러로 330% 증가하면서 전체 대

북 무역의 97%를 차지했으며 국유기업 무역액도 749만3천 달러로 1천% 급증

● 민주조선, 이모작, 전역으로 확대중(7/24, 민주조선)

-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두벌농사(이모작)”는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도”라며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
- 민주조선은 24일 ‘우리 당의 두벌농사 방침의 정당성’이라는 글에서 산이 많고 경작지가 제한돼 있는 북한이 “현 시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부침땅(경작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벌농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두벌농사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모작이 “논에서 뿐 아니라 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벌방(평야)지대에서만이 아니라 북부 고산지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WFP, 식량운송비 北정부 유입보다 과장(7/30,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 예산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의 상당액이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 갔다는 미국 폭스뉴스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WFP가 반박
-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27일(현지시간) WFP의 대북 구호 프로그램관련 문서를 입수했다며, WFP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1월 말까지 총 5억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에 63만t의 식량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1억3천 500만 달러를 식량 운송비용 및 유류비로 배정, t당 206.9달러의 터무니없이 비싼 운송료를 책정했고 이중 상당액이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WFP 로마 본부의 그레그 배로우 북한담당관은 “폭스뉴스가 입수했다는 보고서는 석유와 곡물 가격, 국제운송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2008년 중순 당시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계획일 뿐”이었고 약 3개월 후 국제운송 비용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실제로는 t당 35~4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그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소유 선박을 이용하는 다렌-남포 구간의 운송비

용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WFP가 지원사업을 펼치는 해당국의 운송수단을 쓸 때 해당국 정부에 운송료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관행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에 내는 수수료 t당 8달러는 “우리가 구호사업을 벌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

● EU, 대북 제재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7/30,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유럽지원협력실(AIDCO)의 에드리아나 로조바 아시아지역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로조바씨는 “EU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적 대북 제재 조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인도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 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도 제외된 사안”이라고 언급, 따라서 EU가 지원하고 있는 대북 사업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소개
- EU는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6개의 유럽의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안보 및 농업관련 복구 사업,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

● 北휴대전화, 6개월만에 약 5만명 가입(7/29,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의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시작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6월 말 현재 4만8천명이 가입,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리 방송’은 29일 오라스콤의 최근 발표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오라스콤은 특히 현재 평양 중심으로 된 통화 가능 지역을 올해 말까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외에 통화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며 ‘고려링크’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1만9천208명임.
-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에 114개 휴대전화 기지국과 1개 이동전화 교환국을 설치했으며, 평양 시내 2곳의 고려링크 봉사소가 신규 가입자 접수와 휴대전화 개통, 선불통화카드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북한의 조선체신회

사 3곳에서도 선불통화카드를 판매중

- 오라스콤은 특히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북한내 외국인들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용 고속패킷접속(HSPA)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밝힘.

● 北 최대간척지 복구사업 8월 완료(7/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최대의 간척지로 알려졌으나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황폐화됐던 평안남도 서해안의 금성 간척지에 대한 복구사업이 프랑스의 국제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도움으로 8월말 완료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이 단체의 알렉산더 데보르트 북한사업 담당관은 복구 공사 완료되면 그동안 관리 소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쓸모없는 땅이 됐던 금성 간척지가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복구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언급
- 그는 특히 “이번 복구로 금성리 중악노동지구의 농장과 금성지구 농장에 거주하는 7천여 명의 주민이 일자리를 얻고 식량을 공급받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14만 명에 이르는 온천군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소개

● 함남 마전에 ‘호화’ 호텔 준공(7/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명승지인 마전유원지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세계적 규모”의 마전호텔이 새로 건설돼 27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이 호텔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침실들과 식당, 실내 물놀이장, 한증칸, 목욕탕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해수욕장까지 갖춰져” 있다고 방송은 소개해 북한식 리조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준공식에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등이 참석함으로써 북한 기준으로 “노동당 시대를 빛내이는 창조물들”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규모임을 시사
- 함흥시 교외에 있는 마전유원지는 299만3천700㎡의 부지에 기존 건물로 연건평 3천800여㎡인 16동의 휴양각과 13동의 공공건물, 해수욕장, 보트

장 등을 갖추고 있고 서흥소년단야영소와 마전관광휴양소가 있는 북한 동해안의 대표적 휴양지로 알려짐.

## 라. 군사 관련

### ● 미얀마, 北 도움으로 핵무기 제조(8/1, 시드니모닝헤럴드)

-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한의 도움으로 앞으로 5년 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현지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
- 이는 호주국립대(ANU) 전략문제 연구학자 데스몬드 볼 교수와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 호주인 언론인 필 소튼이 지난 2년 동안 태국에서 2명의 미얀마 망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이 신문은 전언,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부 라웅나잉 산악지역에 동굴을 뚫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

## 마. 사회·문화 관련

### ● 아리랑공연에 '강선의 봉화' 삽입(8/2, 조선중앙TV)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 2009년판에 '강선의 봉화'를 형상화한 장면과 "날로 변모되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장면 등이 새로 포함된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
- 집단체조창작단의 립칭애 창작가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2장 6경 '더높이 더빨리'에서 강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옛 이름)의 붉은 노을을 체육용으로 새롭게 형상하게 된다"며 "새로운 대고조시기에 강선에서 타오른 봉화를 체육적으로 형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 '강선의 봉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를 시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불러일으키면서 제시된 주민동원용 경제 구호임.

### ● 신종플루 정보책자 보급(8/1, 조선신보)

-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에서 '최근 전염병 자료' 제목의 소책자

를 발행해 신종 인플루엔자의 원인과 예방정보 등을 전문의료기관들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이 책자에는 신종플루 이외에도 말라리아, 홍역 등 전염병관련 자료도 함께 설명

● 문화부문, 김일성 우상화 작업 계속(8/1, 조선신보)

- 조선국립교향악단은 “자기 얼굴이 뚜렷한 주곡”을 가지라고 김정일 국방위 원장이 “세심히 지도해줘” 1956년 만들어진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주곡으로 편곡해 내놓았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 신문은 “국립교향악단은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이지만 지난 시기에는 자기의 독자적인 주곡이 없었다”며 “교향악단은 ‘수령송가 작품’을 종자로 해 주곡을 창작하기로 했으며 결과적으로 ‘김정일 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선정됐다”고 설명, 이 노래의 관현악 편곡은 악단의 지휘자인 리철웅(36)씨가 맡았으며, 지난 6월 말 첫선을 보임.
- 또 북한의 중앙미술창작사는故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상화 그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전우와 연고자들의 인물사진에 근거해 해마다 조선화 또는 유화로 초상 및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며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작품은 국가미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모두 국보로 등록돼 조선 미술박물관에 소장된다”고 설명
- 중앙미술창작사 최우철 부사장은 총 300여점으로 계획된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작품 가운데 현재까지 210점이 완성됐고, 김 주석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학기술 없이 자주권도 국방도 경제도 없다(7/22, 민주조선)

- 북한 교육성의 김영인 부상은 29일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간 과학기술 경쟁을 지적하며 교육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과학화, 정보화”를 강조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학과목들을 개척”할 것을 주문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 그는 특히 중등 일반교육 단계에선 우리말과 역사, 지리, 기초과학과 외국어, 예·체능, 기초기술 등 일반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선 “전문분야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지금 나라들 사이에 과학기술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첨단 과학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낼 수 없고 국방력과 경제력도 강화할 수 없다”고 지적

● 北 평양서 리듬체조 국제심판 강습(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최근 ‘제12주기 국제 예술체조(리듬체조) 심판원 강습’이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5일 동안 진행된 강습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 시내 체육단 감독들,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국제체조연맹의 예술체조 1급 심판원인 타마라 봄파(캐나다)가 이론과 실기로 나눠 강습을 했다고 통신은 설명

● 北, 배우자 요건 ‘학력’ 가장 중시(7/17, 신민만보)

-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新民晚報)는 27일 지난 5월과 7월 초 북한 관광을 다녀온 상하이 민간 관광객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녀 공히 배우자의 요건으로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대학 졸업 여부”라고 보도
-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통역이나 관광 안내원 등을 통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귀띔한 뒤 “남성은 여성의 외모와 가정 상황을, 여성은 상대가 노동당원인지와 외모를 배우자 선택의 다음 조건으로 꼽았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美, 유엔 대북 제재 대상 확대될 수도(7/31, 연합)

-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북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을 이끄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30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제재 대상 지정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추가로 제재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고 언급

- 골드버그 조정관은 “미국은 제재 대상 추가에 관여할 것”이라며 미 당국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엔 제재 대상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
- 골드버그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6월 1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7월 16일 대북 제재위를 통해 기존의 3개 북한 기업 외에 추가로 지정한 5개 기관과 5명의 개인에 더해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에 관한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 그는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실행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결과물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 중국 언론은 28일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 7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보도했었음.
- 한편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8월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측 외교·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

● EU,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對北 제재(7/28, 연합)

-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자체 대(對) 북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대외관계 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공동입장’을 채택
-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8~19일 회원국 정상들이 요구한 대로 오늘 이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전치(轉置)하는 ‘공동입장’을 채택했다”라고 밝힘.

- 27개국 정상들은 6월 18~19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 (Presidency Conclusion)’에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언급, 이날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힘.
- 자체적 조치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 역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개인·기관 목록, 금융거래 감시 및 화물 검색 강화 등이라고 성명은 설명
- 이와 관련, EU 외교 소식통은 “오늘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입장’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의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 나. 북·미 관계

### ● 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계속 평가(8/1, 연합)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과거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해제하는 일은 법률적 과정”이라고 지적
- 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답변

### ● 美, 북미대화 6자틀내 원칙 변화 없어(7/30, 연합)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의 대북 접근은 6자회담을 통해 다자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접근이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언급

- 그는 또 “우리는 양자 대화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
-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

● 美, 北핵신무역 제재 추가 지정(7/30,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핵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핵신무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핵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됨.
- 조선핵신무역은 7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음. 안보리는 당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선핵신무역이 WMD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제재대상 지정 이유를 밝혔음. 미 재무부는 조선련봉총기업은 북한의 군수사업에 필요한 물자획득과 무기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소개

● 北, 여기자 협상명목 보즈워스 방북요구(7/30, 마이니치신문)

- 북한과 중국 경계 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기자 석방을 위한 협상을 명목으로 7월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북한 방문을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서방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측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기자들의 대우에 대한 협의를 평양에서 하자”고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사 석방 문제와 핵협상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면서 우선 북한이 이들 기사를 석방하고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시하

는 등 무조건 방북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양측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언

● 北, 美에 잇단 양자회담 공세(7/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판문점, 조미협상탁(탁자)은 남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2007년 미국에 제의했던 북미 고위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관계자’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
- 당시 북한은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북)·미 군부사이의 회담”을 제의했었음.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군이)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조선군대의 평화지향은 변함없다”고 ‘평화지향’을 강조하면서 북미 군사회담 제안의 유효성을 상기시킨.
- 신문은 “미국은 조선이 취한 강경자세를 왜곡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식 논리는 조선이 그 무슨 외교적 효과를 타산하여 ‘벼랑끝전술’의 일환으로서 ‘군사적 모험’을 준비한다는 줄거리를 꾸미지만 여기엔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관서 연회 개최(7/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인민해방군 창건 82주년을 맞아 31일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장성들, 각국 대사와 무관들이 참석

● 北영화·방송음악단 9월 베이징서 공연(7/30, 경화시보)

- 북한 영화·방송 음악단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현대식 극장인 세기극원(世紀劇院)에서 공연한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0일 보도
- 장명일 단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북한 영화·방송·음

악단은 9월 4~5일 이틀간 세기극원 무대에 올라 이 음악단의 대표 창작곡인 ‘꽃 파는 처녀’와 ‘피바다’ 등 북한 노래와 영화 삽입곡 등을 연주,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은 이 음악단은 영화문학창작사와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악 4만5천여 곡을 창작

● 中, 시진핑이 지원하던 대북사업 돌연 중단(7/30, 연합)

- 중국의 철강회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 돌연 관련 설비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29일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업에도 투자하는 ‘중광(重鑛)국제투자’는 이달 중순쯤 선양의 북방중공업(NHI)에 북한 혜산의 동광산(최대 추정 매장량 40만t) 개발을 위해 의뢰했던 설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 중광은 2006년 11월 혜산 동광산을 개발하기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 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NHI에 의뢰, 그러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기업 명단에 올랐음.
- 중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6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혜산 동광산 개발이 중국의 북한 투자 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뒤, NHI가 설비 공사를 서둘러 올 9월에는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이처럼 사업 막바지에 갑작스레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광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
- 중국은 지난 24일에도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이 밀반입하려던 전략적 금속인 바나듐(vanadium)을 압수한 바 있음. 중광 측은 갑작스런 중단 결정과 관련, NHI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北, 6.25때 중국지원에 사의(7/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앞두고 26일 개최한 ‘조국해방전쟁승

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6.25 전쟁 때 군사지원을 한 중국에 대한 사의 표명을 잊지 않았으나 종래보다 한결 열어진 표현을 사용

-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27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중국 인민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지지성원 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고 소개

## 라. 북·러 관계

### ● 주북 러 대사관, 농촌지원활동(7/29, 조선중앙통신)

- 주북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29일 평안남도 천리마군 고창협동농장에서 농촌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사관 관계자들은 콩밭 김매기 작업을 하고 준비한 지원물자를 전달

## 3 대남정세

### ● 北, 개성통행자 개별서류 제출의무 면제(8/2, 연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대체로 규제를 강화해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우리 측 통행자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남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이른 바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남측과 합의
- 대신 우리 측 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당일 출입자의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음.

### ● 남북, 군채널로 ‘연안호’ 입장 교환(7/31, 연합)

- 남북은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갔다가 북에 예인된 우리 측 어선 ‘800 연안호’ 처리 문제와 관련, 군사 실무 책임자 라인을 통해 공식 소통을 시작,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31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현재 연안호

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이 전통문을 보내온 것과 같은 경로로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재차 촉구

- 정부는 우리 측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북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7월 30일 우리 측 어선 연안호의 북방 한계선 월선은 항로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
- 이에 따라 남북은 향후 양측 군사실무책임자 채널을 통해 사건 처리 문제를 협의하게 될 전망, 29t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는 30일 오전 5시 5분께 강원도 제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동해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장전향으로 예인됨.

● 8월 초, 민간대북지원사업 기금지원 의결(7/31, 연합)

- 정부는 내주 초 10여개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 교류협력기금 약 3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회의를 최근 개최, 10여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 이에 따라 통일부는 31일 국회에 지원 계획을 보고했으며 내주 초인 8월 3~4일 즈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서명 절차를 끝으로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기금 지원이 최종 의결될 경우 비록 민간을 통한 간접지원이긴 하지만 지난 4~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보류했던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의미가 있음. 기금 지원 대상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성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

●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내일 발효(7/30, 연합)

- 남북교류협력 사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31일 발효,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음.

-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해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그리고 당국 간 합의에 따른 행사나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울러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됨.
- 새 법률은 이와 함께 '행정조사제도'를 도입,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음.
-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지난 1월 개정된 이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침.

● 월드비전, 핵실험 후 첫 방북(7/30, 연합)

- 대북 지원단체인 월드비전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민간 지원단체로는 처음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8월 1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월드비전 관계자는 30일 “북측 민경련으로부터 이미 초청장도 받아 냈고 통일부로부터도 구두 승인을 얻어 놓았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일 중국 선양으로 갔다가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월드비전 방북단은 씨감자 농사 지원사업 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돼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씨감자 대단위 사업장인 량강도 대흥단 등지를 둘러볼 계획

● 北, 동해 NLL 월선 南어선 장전항 예인(7/30, 연합)

-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29t급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 연안호(선장 박광선)'는 이날 오전 5시 5분쯤 강원도 제진 북동쪽 36.4km 상의 동해 NLL을 12.7km가량 넘어감. 군 관계자는 “당시 어선 통신망을 통해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연안호는 선체가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

- 어졌고 소형이어서 월선(越線) 전 이 배와 54.6km 거리에서 경비 중이던 우리 초계함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군은 언급
- 이후 북한 수역으로 들어간 연안호는 오전 6시 20분쯤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에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복귀 향해 중 북한 경비정을 발견했다”고 교신, 선장 박씨는 “북한 배에서 조사받는다”고 짝막하게 마지막 교신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 해군은 오전 6시 27분쯤 연안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는 모습을 포착했고, 6시 30분쯤 고속정 2척을 긴급 출동 시킴.
  - 우리측은 6시 44분쯤 상선 공통망을 통해 북한 경비정에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다. 즉시 남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 통신한 데 이어, 7시 16분쯤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난 6월 30일과 7월 5일 귀측 어선을 돌려보냈다.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기 바란다”고 재차 통신했지만 북측은 모두 응답하지 않음.

● 정부,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7/27, 연합)

- 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 안보리에 제출
- 정부 당국자는 “국가이행보고서는 결의 1718호와 마찬가지로 결의 1874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무기 및 물품 금수와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힘.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약산총무역회사 간부임.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춘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회사임.
-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03-08.09

8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별첨〉 클린턴 방북 결과 北발표 '보도' 전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클린턴, 대화로 문제해결(8/5,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4일 회동 결과가 일부 공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공개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 중 가장 강조되는 것은 ‘대화해결에 대한 견해 일치’
- 조선중앙통신은 “조미(북미)사이의 현안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 되었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고 보도
- 이목을 집중시킨 클린턴-김정일 회동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미간 현안이 충분히 논의 되었으며, 그 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소개,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음.
- 통신은 또 “클린턴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클린턴이 정중히 전했다”고 보도,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개요가 충분히 전달됐음을 보도

#### ● 클린턴 방북 보도(8/4, 8/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빌 클린턴(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을 완전히 털어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및 만찬 소식으로 채움.
- 조선중앙통신은 새벽 3시 58분에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조선 방문과 관련한 보도’ 전문을 띄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4일 오후 10시 두 사람의 면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뒤 매시간 같은 뉴스를 반복
- 북한은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여기자 문제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 또 “클린턴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세지를 정중하게 전달하였다”고 보도, 북한 매체가 ‘친서’ 또는

‘구두 친서’란 표현을 쓴 적은 있어도 ‘구두 메세지(메시지)’란 용어를 사용한 전례는 없었음.

- 또 4일 만찬장에 김 위원장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등장한 것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김기남은 대미 외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홍보 전문가”라며 “이번 방북을 대내외 정권 홍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
- 북한은 ‘클린턴 방북’을 보도하면서 실수도 연발, 4일 평양방송은 정오 뉴스를 시작할 때 “미국 전 대?”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5~6분 동안 경음악을 내보낸 뒤 다시 뉴스를 시작, 5일에는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이 오전 5시 58분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가 7시 54분쯤 “해당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힘.

● 北보위부, 여기자사건 “김정운 업적” 선전(8/9, 연합)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미국 여기자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이름 붙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해결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정운의 업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9일 전언
- 최근 국가안전보위는 내부 강연회에서 이번 여기자 사건에 대해 “김정운 대장의 지략으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와 장군님(김정일)에게 사죄했다”며 “이는 모두 김정운 대장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전술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을 김정운의 치적이라고 선전하는 활동이 북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임.
- 김정운은 8월 1일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김 위원장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각종 현지지도 활동에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 4월 하순 시작된 ‘150일전투’와 전례없이 성대하게 치른 올해 5.1절(국제노동절) 기념행사 그리고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기념 ‘축포야회’ 등도 김정운의 작품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은 지난 6월 ‘평양 내부소식통’을 인용, 북한 내부에서 “김정운의 위대성과 그의 혁명 활동에 대한 집중 학습이 전

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북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 월드컵축구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도 김정운의 “체육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큰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이 소식지는 전언

## 나. 정치 관련

### ● 北, 南제재이행보고서는 도발(8/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한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해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통일적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세력이 그 무슨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우리 공화국을 드나드는 선박 및 화물의 검색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다”며 “북남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는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주장

### ● 태중수 부총리, 함남도당 책임비서에 임명(8/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태중수 내각 부총리가 지난 4월 홍성남 사망 이후 공석인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8일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7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하면서 “태중수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했다”고 밝힘.
- 태 신임 책임비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1970년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1976년에는 자강도 희천정밀기계공장 지배인을 역임했으며 1980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랐고 2000년대에는 평안남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를 지냈음. 그는 2007년 10월부터 내각 부총리에 임명돼 활동했으며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부총리에 유임되었음.
- 태 신임 책임비서는 노동당 활동 뿐 아니라 북한의 대형 기업소에서 지배인과 당책임비서를 지내 경제와 정치를 모두 아는 인물로 북한당국이 중시하고 있는 광산, 기계, 화학공장 등 주요 대형 기업소가 집중돼 있는 함남도 지역을 총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

● 공석 9년만에 평양시당 책임비서에 최영림 임명(8/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9년째 공석 중이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인 올해 80세의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방송은 6일 평양방직공장 종업원 궐기모임(8.5)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그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로 호칭
- 7월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휴전협정 체결)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그는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사회를 봤다고 당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북한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평양시의 모든 것을 책임진 막강한 자리로 평양시장격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위치에 있는 실권자이며 2000년 9월 당시 강현수 책임비서가 “급병으로 사망”한 이래 공석이었음. 그동안 평양시당 책임비서 직책은 대부분 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고위층이 맡았고, 전임자인 강현수의 경우故 김일성 주석의 외사촌 동생이었음.
- 최영림 신임 책임비서는 오랫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인물, 그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56)과 부부장(1967)에 이어 당내 경제부서 부장(1971)으로 일하다가 1973년 김일성 주석의 책임서기(비서실장)로 발탁돼 무려 8여년간 그 자리를 유지, 1980년 다시 당내 경제부서 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그는 82년 김 주석의 요구로 책임서기를 맡아 약 1년간 일했고 81년 정무원 부총리로 나갔다가 86년 또 다시 김 주석의 책임서기로 임명되는 등 무려 3차례 걸쳐 김 주석의 비서실장을 맡음.
- 그는 1990년 책임서기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임명됐고 중앙검찰소장(1998-2003)에 이어 지난 2005년 4월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맡아 왔음. 그는 친자녀 없이 1남1녀를 입양했는데,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출발 때 공항에서 북한측 통역으로 나선 여성이 그의 딸 선희(45)씨였음.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최선희는 북핵 6자회담 북측 대표단의 통역을 비롯해 북미간 주요 회담의 통역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로 오스트리아, 몰타, 중국 등에서 특별유학하기도 했음.
- 최영림 책임비서는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에 이어 제7기부터

지난 3월 선거가 실시된 제12기까지 연속으로 대의원에 선출됐으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서기장을 유지한 채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임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北개정헌법, 국방위원장 권한강화 확인(8/5, 연합)**

- 북한이 지난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을 통해 특사권을 종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권한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
- 북한은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노동교화형을 받은 미국 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었다"고 밝힘.
-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 제103조에 5개 조항으로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했지만 특사권은 포함되지 않았음. 대신 제110조의 17항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중 하나로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고 명시,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정권 기념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을 실시할 때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이름을 내세웠음.
- 북한은 아직 지난 4월 개정헌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특사를 실시토록 국방위원장이 명령했다는 것은 특사권의 소재가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시키는 것임.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5월 22일자에서 방북했던 환일본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측 관계자들이 새 헌법에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종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있던 권한들이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 **클린턴 방북 최대의 성과로 평가하는 北(8/4, 연합)**

- 4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배석자 면담은 북한이 이번 회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이 자리에 배석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 대미 외교의 사령탑,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임.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강석주 제1부상

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배석했다면 북핵문제와 대남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실제 북한 매체들도 “(미·북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

- 이날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해 만찬을 개최한 백화원 영빈관은 북한의 국민 숙소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장쩌민 전 중국 주석 등도 머물렀던 곳임.
- 특히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만찬을 베풀었다”(북한 방송)는 것은 “최고의 격을 갖춘 환대”(대북 소식통)라는 분석, 1994년 당시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나흘 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석 부부와 함께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기도 했음.
- 또 만찬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의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제1부상, 김양건 부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측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행원들이 참석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
- 이 중 우동측은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으로 미국 여기자 사건 처리의 최고 책임자임. 조선중앙TV는 4일故 김일성 주석이 1994년 방북한 지 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는 내용이 포함된 기록영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을 지난달 4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재방영

● 北, 빌 클린턴 평양 도착 보도(8/4,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4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
- 이들 매체는 정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하고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으며 화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줬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다. 경제 관련

### ● 北, 유용광물 수출로 경제부흥 전략(8/8,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함경남도 단천지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현황과 전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 신문은 8일 '미국도 관심, 풍부한 조선의 지하자원', '백금의 빛깔은 《나라가 흥할 징조》', '활기 되찾는 조선의 《돈산》'이라는 제목의 3가지 기사를 통해 단천지구 가운데서도 대흥청년영웅광산과 검덕광산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들 광산에서 나오는 유용광물의 해외수출을 통해 확보하는 외화가 최근 북한의 광산, 기업소와 경공업공장의 설비를 개선·현대화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
- '미국도 관심, 풍부한 조선의 지하자원'이라는 기사에서 신문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최근 유럽나라들이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 등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업들도 대북진출을 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곤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이 지하자원 탐사에 관해선 "주요비밀로 여기고 이와 관련해선 일절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장량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외부의 여러 기관"의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500종의 광물자원이 있고 그중 산업에 사용되는 유용광물이 200여종이 있다고 언급, 특히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철, 텅스텐, 무연탄 등 대표적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대급"이라고 주장
- 또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36억t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에는 80년대 들어 개발이 시작된, "붕우리 하나만으로 '수십억t'이 매장돼 있다"고 북한 관계자들이 말하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매장량은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언급, 이 붕우리는 일명 '6월 5일 금강산'으로 불리는 것으로, 광체가 땅 위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

### ● FAO, 北주민 600만명 올 추수까지 식량난(6/8, 자유아시아방송)

- FAO는 '전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란 이중고로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FAO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첵 팡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봄에 추수 했던 보리와 햇감자마저 대부분 소비한데다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북한이 올해 농사를 짓기에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북한은 외부에서 170여만t을 들여와야 한다”고 언급
- 팡 박사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날씨도 좋았고, 강수량도 좋았고,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도 없었다”며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부족한 비료의 공급으로 비료가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이 중단돼 생산량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최근 보리나 햇감자 등 두번째 추수를 했지만 이는 일 년 생산량의 10%에 불과하고 추수 후 1~2달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

● 北, 2012년까지 평양에 주택 10만 가구 건설(8/7, 조선중앙TV)

- 북한은 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오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평양시 건설자들의 궤기모임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모임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 최영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로두철, 오수용 내각 부총리,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일꾼과 건설자, 근로자들이 참가
- 오수용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며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전투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가로막아 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보도

- 그는 전체 일꾼과 건설자들에게 10만 가구 주택 건설에서 “선군조선의 전위투사의 영웅적 기상과 슬기”를 발휘하며 “전당, 전국, 전군이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 이어 김국남 수도건설부 참모장, 한길선 형제산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한성남 속도전청년돌격대 여단장, 양호 금속공업성 부상 등이 토론자로 나서 3년 만에 주택건설을 성과적으로 마칠 것을 다짐했으며, 결의문도 채택
- 앞서 조선신보는 6월 25일자에서 평양시 10만 가구 주택 건설사업은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시기에 세워진 낡은 살림집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6-18층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

● 인민을 벼랑끝에 내모는 150일 전투(8/3, 연합)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의 ‘업적 쌓기’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150일 전투’를 강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노동신문은 7월 29일 전투 개시 100일을 맞아 “(북한)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과 기적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면서 “지난 100일을 구보로 달렸다면 앞으로 50일은 습보(전력질주)로 내달리자”고 독려
- 그러나 150일 전투의 실상은 북한 선전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보안원(경찰)들이 ‘누워 있는 사람 빼고 모두 농촌으로 나가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길거리에서 사람만 보면 즉시 체포해 농촌으로 보내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빈둥거리거나 땅바닥에 누워 있다”고 전언
-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선 장사를 하거나 개인 ‘빼기 밭’을 일궈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음. 그런데 주민들을 강제로 농장과 공장으로 보내자 “굶어 죽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함.

● 김정일, 농장 자연흐름식 수로 자체건설 지시(8/3,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농사짓는데 최대 난문제 중 하나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연흐름식 물길을 건설

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신보가 3일에 보도

- 신문은 3일 '150일 전투의 나날에 - <어제와 다른 오늘에 산다> 보부협동농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자연흐름식 물길을 조성한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 13일 최고영도자가 "곳곳에 자연흐름식 물길을 꾸리고(조성하고) 전기가 없어도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
- 자연흐름식 물길은 취수장에서 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물을 보내는 과정에 가압펌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
-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선 2000년대 들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개천-대성호(150km, 2002년 10월 준공), 백마-철산(270km, 2005년 10월 준공) 등 전역에 규모가 큰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됨.

## 라. 군사 관련

### ● 남아공, 북한에 군수장비 판매 승인(8/7, 연합)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유엔이 무기수출 금지 국가로 지정한 북한 등에 무기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남아공의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이 비난, 7일 DA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재래무기통제위원회(NCACCC)는 자국의 한 군수업체에 지난 2006년 잠수함용 레이더정보수신기(RWR)의 북한 내 전시·시연을 승인
- RWR는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탐지해 대잠 초계기의 공격을 피하는 데 쓰이는 장치, 이 장비는 그러나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번 조사를 주도한 DA 소속 데이비드 메이니어 의원은 "남아공 군수업체가 NCACCC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서 전시, 시연회를 열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힘.

## 마. 사회·문화 관련

### ● 수학올림피아드 수상 北 '엄친아'들(8/8, 조선신보)

- 최근 독일에서 열린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팀성적 5위를 기록한 북한 학생들을 맞은 평양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 등 이들 학생의 모교

- 에서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조선신보가 8일자 신문에서 보도
- 신문은 이들 학생의 “거주지역의 인민반들과 부모들의 직장들에서는 장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소개하고 또 북한 전역에서 이들 학교에 축하 편지와 전화, 전보들이 연이어 날아들고 있으며 평양 시내 여러 중학교 학생들은 수상자들의 학습경험을 배우려고 연일 이들의 숙소를 찾는 이채로운 풍경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
  - 이번 수학올림피아드에는 104개 국가와 지역에서 5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북한에서는 리은성군외에 김정철, 리영현이 금메달, 손해철, 최장수가 은메달, 전호진이 동메달을 각각 받았으며, 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임.

● 통일신보, 월드컵 본선 진출도 김정일 덕(8/8, 조선신보)

- 통일신보가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한 축구의 “근본 비결”은 “령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화같이 그리는 혼연일체에 기초한 정신력에 있다”고 주장
-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서 조선(북한) 남자축구 선수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으나 “세계 축구계가 조선 축구에 대해 머리를 짜내 연구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따라 배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 신문 최근호(8.8)는 자찬

● 北대동강맥주, TV광고 후 판매 급증(8/8, 통일신보)

-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 맥주 브랜드인 ‘대동강 맥주’가 지난달 초 북한의 TV에 광고를 낸 뒤 수요가 급증했다고 통일신보가 8일 보도
- 9일 북한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이 신문에 실린 ‘뜨거운 맥주’라는 제목의 ‘수필’은 “TV에서 대동강흰쌀맥주에 대한 광고 편집물이 방영되더니 그 수요가 부쩍 늘어나 어느 맥주집이나 ‘초만원’이라고 한다”고 소개
-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 광고는 7월 2일 저녁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방송됐으며 딱딱한 느낌을 주던 이제까지의 북한 TV 광고들과는 판이하게 전형적인 상업광고식으로 눈길을 끌었음. 약 3분 분량의 이 광고는 “국제규격화기구의 품질인증(ISO 9001) 획득”, “품질 및 위생안전성 담

- 보"라며 품질과 위생을 강조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2, 광물질" 등의 영양성분으로 "스트레스 해소, 이노 작용"에도 좋다고 기능성도 소개
- 신문은 또 "공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대동강맥주'라는 푸른색 글발을 단 은백색의 대형 냉동차들이 인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집들을 찾아 달리고 있다"며 대동강맥주가 "오늘 수도의 곳곳에서 녹은(저렴한) 값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소개
- 평양에는 생맥주 판매점인 '대동강 맥주집'이 200여 곳 성업 중이며, 북한에는 대동강맥주공장 외에도 평양맥주공장과 룡성맥주공장 등 4~5곳에서 맥주를 생산

● 北매체, 꿈이 많은 사람·말이가 장수(8/7,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서도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민족끼리는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며 9가지 장수 유형을 제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녹색과 가까이 하는" 사람, "꿈이 많은 사람" 등이 장수할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7일 '건강상식 - 어떤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몸무게가 표준보다 20%를 초과한 "몸이 비교적 싼" 사람을 꼽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해선 남자는 1.65-1.68m, 여자는 1.59-1.62m라고 수치를 제시

● 北, 무용가 최승희 업적소개 영상물 방영(8/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5일 저녁 일제 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를 "조선민족 무용계의 한 떨기 꽃"이라며 그의 월북 이후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는 19분짜리 '소개편집물' 영상을 내보냄. 북한 무용계는 최근 그의 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50여년 만에 복원, 내년 재연할 예정이어서 북한에서도 2011년 최승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조명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
- 최승희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남편 안막(安漠)을 따라 월북, 활동하다가 1967년 "체제전복을 꾀한" 남로당에 연루된 죄목으로 숙청됐으나 2003년 '신미리 애국열사릉'으로 이장됨으로써 복권된 것이 확인됨. 그의 사망 연

도도 불확실했으나 애국열사릉 묘비에 1969년 8월로 적혀 있음.

- 조선중앙TV는 ‘현대 조선민족무용 발전에 기여한 무용가로 내세워 주시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승희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 일화를 중심으로 최승희의 무용 업적을 소개
- 방송은 최승희가 1946년 월북한 것이 김 주석이 보낸 “일꾼”으로부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월북한 최승희에게 김일성 부부가 평양 대동강변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마련해줬으며, 특히 김 주석과 부인 김정숙의 “기대와 관심”이 “각별”했다고 소개, 방송에 출연한 금성학원 무용특설강좌 교원 최호섭은 최승희를 ‘고모’라고 부르며 최승희를 회고
- 방송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퇴각할 때 압록강 부근의 고산진에 있던 북한군 최고사령부를 찾은 최승희에게 김 주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내에 있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라며 최승희를 중국으로 피신시켜 무용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원했다고 소개
- 방송에 출연한 한철 문화성 부상에 따르면 최승희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조선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을 역임했고 공훈배우, 인민배우의 명예칭호도 수여 받음. 평양무용대학의 리수복 부교수는 최승희의 제자들이 “5대 혁명가극 무용장면들과 4대 명작 무용작품들 그리고 여러차례 진행되는 대공연들의 많은 무용작품들을 창작”했다고 언급
- 방송은 그러나 그가 1967년 숙청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을 건너뛴 뒤 복권과 재평가 과정을 소개

● 평양국제건축도서전 폐막(8/5, 조선중앙통신)

-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가 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건축, 출판부문 일꾼, 건축가,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한 폐막식에서는 전시회에 출품했던 도서와 자료들을 기증한 단체에 증서가 수여되고 기념품이 전달

● 평양무용대학 신설(8/4,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무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평양무용대학을 새로 설립했다고 조

선신보가 4일 보도, 신문은 북한에서 종전까지 무용 교육은 평양음악무용 학원이 담당했지만 “이번에 평양음악무용학원에 배속되어 있던 무용 부문을 분리하여 무용대학으로 승격시켰다”고 소개, 이에 따라 종전 평양음악 무용학원의 이름은 평양음악학원으로 개칭

- 신문은 북한이 “새 대학의 설립을 계기로 발레무용단과 관현악단, 박사원도 발족시켰다”고 소개, 이 대학에는 조선무용학부, 발레무용학부, 무용창작학부, 사회과학학과, 조선무용연구소 등이 개설, 학제는 조선무용학부와 발레무용학부가 2년제이고 무용창작학부의 안무학과, 무용표기학과는 3년제이며 무용이론학과는 5년제임.
- 이 대학에는 또 6년제의 중학반(중고교 과정)이 병설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발레극장도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 교육성의 류신정(63) 부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용인재의 원종장(원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될 평양무용대학은 조선의 무용예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北에서도 막걸리 “건강음료”로 새삼 인기(8/3, 조선신보)

- 북한에서도 최근 “민족성의 강조와 건강중시의 양측면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막걸리는 발효주로서 건강에 좋고 도수가 낮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남한에서 소비가 크게 늘고 있고 대일 수출도 최근 급증하는 등 ‘웰빙’주로 부활
- 조선신보는 ‘술, 맥주보다 막걸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막걸리는 술이나 맥주보다 건강에 유익한 점들이 많으며 당뇨병,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비롯한 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평양에선 여러 식당이 참가한 막걸리 경연이 3차례 열렸다고 평양에서 부는 막걸리 바람을 소개
- 신문은 특히 대동강구역에 있는 문수식당이 “막걸리의 고유한 맛과 향기, 산미를 살리면서도 발효기일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해 막걸리 경연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신문은 소개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美정부, 13개월간 北물품 수입 허가 불허(8/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을 단 한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미 재무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북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이 10건 이상 접수됐지만 재무부는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며 “접수된 모든 수입 신청서를 심사 중”이라고 보도
  -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제되고 있음.
  -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스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북한과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 신청을 ‘거부’가 아닌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의 교역을 현 상황에서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
- 美국무부, 공은 北에 넘어가 있다(8/7, 연합)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당시 북한에 추가 고립을 경고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공은 북한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
- 클린턴, 김정일에 추가고립 경고(8/6, ABC방송 인터넷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경우 추가적인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ABC방송 인터넷판이 6일 보도
  - 소식통은 북한 핵문제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제기되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제적 추가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일본인 피랍자와 억류된 한국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했다고 보도

- 美여기자들 북한국경 넘었다(8/6, CNN, AP통신; 8/5, CBS,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로라 링과 유나 리 등 여기자 두 명은 실제로 불법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다고 로라 링의 언니가 6일 밝힘. 로라 링의 언니인 리사 링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그녀(로라)는 북한 영토를 아주, 아주 잠깐 밟았었다고 말했다”며 30초 남짓 국경을 넘은 결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변했다고 언급
  - 리사 링은 그러나 “그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엔 북한 국경을 넘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두 여기자가 국경을 넘은 것은 절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고 강조
  - 리사 링은 또 로라가 억류된 동안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었지만 식사가 너무 부실하고 전화 통화를 감청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힘들어 했다고 전언, 로라의 방 안에는 감시원 2명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었지만 로라는 알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는 것, 그녀는 로라가 뭔가를 읽거나 운동 삼아 방 안을 빙빙 돌고, 물 공급 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머리를 언제 감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다고 전언
  - 리사 링은 “동생은 다소 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집에 오자마자 신선한 음식과 과일, 스시를 저녁으로 먹고 싶어했다”고 AP통신에 밝힘. 리사 링은 “동생의 밥에 돌이 섞여 있었던 걸로 보아, 그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고 언급
  - 두 기자는 또 재판관을 받은 뒤, 노동교화소로 끌려가지 않고, 초대소(guest house)에 머물며 생활, 미국 CBS 방송은 로라 링은 억류되고 나서 궤양에 걸려 15파운드(6.8kg)나 빠졌는데, 북한측은 주기적으로 그녀에게 의사 검진을 받게 했다고 5일 보도
  - 두 여기자는 북한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음. 고급 숙박시설인 평양 초대소에 머물게 하며 토스트와 계란, 우유 등 미국 식단까지 챙겨줌. 그러나 두 사람은 억류된 기간 대부분 서로 떨어져 지냈음.
  - 한편, 북한은 이번에 두 기자를 석방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 북한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 조종사였던 보비 홀(Hall) 준위를 석방할 때는 국제 전화비로 1만 달러를 요구했고, 1996년 에번 훈지커(Hunziker) 씨를 석방할 때는 벌금으로 10만 달러를 요구

● 백악관, 클린턴 訪北 비난 일축(8/6, 연합)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유사한 여론의 각광’을 노리는 다른 ‘미국의 적(敵)’들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방북에서 선례를 잃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석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지를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번 방북에 대한 일부 비난에 대해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이나 의원들에 의한 유사한 임무가 수행됐었다”면서 “이번 방문은 결코 그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구체적 요구들에 대해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이번 방북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를 개선시키도록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전 대통령은 6일 뉴욕 클린턴 재단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번 방북 중 앞서 국무부가 여기자 사건에 대해 표명한 유감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있을지도 모를 결정들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함구

● 美국무부, 北핵협상 복귀 더 지켜보아야(8/5, 연합)

- 미국 국무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북과 관련해 시작될 때부터 핵협상과는 분리된 개인차원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두 사안은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언급,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핵복귀 여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

● 美백악관, 北, 책임·합의이행이 관계개선 길(8/5, 연합)

- 미국 백악관은 5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책임과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여기자 2명을 석방

한 것이 북미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여기자 석방)을 다른 일로 보고 있다”면서 여기자 석방과 북핵 문제를 분리한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듭 확인

● 미측이 밝힌 클린턴 방북서 여기자 석방까지(8/4, 뉴욕타임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부터 억류됐던 두 여기자를 태운 비행기가 순안공항을 이륙할 때까지 20여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이면에는 넉 달에 걸친 양국 관계자들 사이의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 과정이 있었음.
-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물론 두 여기자가 소속된 미국의 케이블 방송 '커런트TV'를 소유한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여기자 가족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 북한 측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여기자들의 석방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여러차례 브리핑을 받았으며 방북 직전인 8월 1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사는 워싱턴의 자택에서 브리핑을 들음. 하지만 고어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자 석방문제를 상의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밝힘.
-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한 전기는 7월 중순 북한 당국이 허용한 여기자들과 가족 간의 전화 통화에서 마련, 이들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면 자신들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북한 측의 의사를 전달, 가족들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이 임무를 맡을 용의가 있는지 타진한 것은 7월 24~25일께라고 AFP통신이 보도,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여기자들의 석방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이 방문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뤄진 막후 협상의 진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 이들이 신경을 쓴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미대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 핵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는 것이었다고 관리들은 소개, 그리고 북한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사적 성격이며 여기자 석방에

초점을 맞추는 인도주의적 차원임을 직접적으로 용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아울러 당국자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당사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북의 성격이 인도주의적 성격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힘.

-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행들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1시간 15분 가량 만났으며 이후 2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에 참석했다고 미 고위당국자는 전언

## 나. 북·중 관계

### ● 北·中 공식채널 교류 여전(8/7, 인민일보)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일 북한 최대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뤼수강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상무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 최대북 당비서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관심 속에 북중 우호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와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가 올해 초 북·중 우호의 해를 선포한 만큼 양국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 언급
- 뤼 부부장 일행은 3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날 타오젠(陶堅)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도 방북

### ● 中, 6자회담 재개 기대 표명(8/5, 홍콩 봉황TV)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
- 장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개인적인 방문임을 강조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
-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각국이 힘을 합쳐 북핵 문제가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3 대남정세

#### ● 정부, 민간대북지원단체에 35억 지원 결정(8/3, 연합)

- 정부는 3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218차 회의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한 결과, 10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7천300만원(사업 운영관리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발표
-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간을 통한 간접지원이긴 하지만 지난 4~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보류했던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의미
- 이번 기금 지원 대상은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그 결과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통일부는 설명

#### ● 北주재 법인에 국내은행 원화계정 허용(8/4, 연합)

- 북한에서 사업하는 남측 법인도 국내 은행의 원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됨.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업자들이 불필요한 이중 외환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짐. 그동안 남측 기업은 북한에 현지 법인을 만든 뒤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려면 일단 달러로 바꿔야했음. 이후 현지 공장 등을 짓고자 남측에서 자재를 사들이기 위해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 등 잦은 외환 거래에 따른 환 손실이 적지 않았음.

〈별첨1〉 클린턴 방북 결과 北발표 ‘보도’ 전문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전 4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조선방문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발표되었다”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북한측의 ‘보도’를 전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클린턴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클린턴 일행은 체류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례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 나라에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상봉들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 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화하고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로동교화형을 받은 미국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클린턴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세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미국 기자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적인 정책의 발현이다.

클린턴 일행의 우리나라 방문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리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08.10-08.16

8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16일 현정은 회장 면담·오찬(8/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방송들이 이날 저녁 보도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8월 16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현정은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셨다”며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고 보도
- 통신은 현 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한 뒤 “현대그룹의 선임자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했다고 설명, 김 위원장은 이어 현 회장과 일행을 위해 오찬을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양건 위원장도 참석
- 이번 면담은 현 회장의 방북 7일 만에 이뤄진 것임. 현 회장은 지난 13일에는 김양건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예상보다 늦어졌음.
- 현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이튿날 17일 오후 경의선 육로를 거쳐, 개성공단에서 기다리는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과 함께 남쪽으로 귀환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호칭해 그가 아태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확인

#### ● 김정일, 강원도 원산서 현지지도(8/13, 조선중앙통신)

- 최근 함경남도 함흥시에 머물고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로 이동해 송도원 청년야외극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인민군 제974군부대 관하 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과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부대 위치는 밝히지 않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송도원 야외극장을 돌아보고 극장관리 운영지침을 내렸으며, 공연을 관람하고는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소개, 이 현지지도와 공연관람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박남기 부장 등 노동당 간부들과 군 장성급 인물들이 수행

● 김정일, 함경남도 함흥서 현지지도(8/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대극장에서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12일 오후 보도, 북한 매체들은 이날 이른 오전에는 김 위원장이 함흥시에 있는 김정숙 해군대학을 시찰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연극 공연을 관람한 일시는 밝히지 않아 그가 해군대학 시찰과 같은 날 공연을 관람했는지 다른 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날 공연 관람 후 김 위원장은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조중 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문화예술 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와 태중수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김기남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의 당, 군, 정 최고위 간부들이 대거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을지연습에 우리식 보복 대응(8/16,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침략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우리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상전과 주구가 한쪽이 되어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이번 핵전쟁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과

념으로 설정한 침략적인 전쟁행위”라고 주장

- 그는 UFG가 방어용 군사연습이라는 설명에 대해 “이 핵전쟁연습은 결코 그 누구의 위협을 막고 조선반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력시위가 아니다”라고 반박
- 대변인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맞설 것이며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도 미사일로 맞설 것이고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고 대결을 극한 점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 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는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와 단호한 입장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

● 통일신보, 반북대결 정책 전환 공세(8/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데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주장
- 1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14일 ‘민심을 오도하는 불순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한 정부가 ‘북과의 대화는 북의 태도와 입장에 달려 있다’, ‘북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이 지금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느니 ‘믿고 지켜봐 달라’느니 뭐니하고 너스레를 피우지만 보수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한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무모한 단계에 이른 북침전쟁 도발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국군 특수전사령부의 해상침투훈련과 국방부의 민사작전 계획 등을 거론하며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무력증강이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는 악화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
- 이 신문은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글에선 남한이 ‘외세와는 ‘혈맹’과 ‘동맹’을 부르짖으면서도 피를 나눈 동족에 대해서는 ‘주적’이니 ‘제2의 서해충돌사건 불사’니” 하고 있다며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민족공조”를 주장

● 통일신보, 김정일-정주영 ‘깜짝면담’ 詩로 소개(8/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4일자에서 지난 1998년 10월 말 소떼를 몰고 2차 방북했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숙소를 김정일 위원장이 찾아 면담하게 된 과정을 시인의 회상 형식으로 다룬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시를 실음.
- 시는 당시 “방방곡곡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지방의 한 공장을 눈앞에 두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이튿날 떠날 것이라는 보고문을 받아들자 차를 세우게 한 채 자신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냐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날 것이냐 망설이다 차를 평양으로 돌리게 했다는 식으로 묘사
- 시는 “안타까움에 젖은 일꾼(간부)들”이 “장군님, 공장 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이 “지금 평양에선 남녘동포가 나를 기다리고 있소”라며 “되돌아 천리 평양길에” 올랐다면 “숭고한 민족애”를 찬양
- 김 위원장은 깊은 밤 정 회장이 묵고 있던 숙소로 도착, 정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사업도 민족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선생에게 맡기니 한번 잘해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시는 소개

● 北, ‘사상주입 전초’ 평양 유선방송국 60돌(8/14, 조선중앙방송)

- 평양시의 유선방송국(국장 김창국)이 창립 60돌을 맞아 1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보도, 이번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 류영섭 체신상, 김해성 평양시 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
- 북한 당국은 이 유선방송 청취를 위해 모든 가구에 스피커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각 지역 유선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주민들이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유선방송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편집한 자체 방송을 함께 내보냄.
- 평양시 유선방송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제3방송편집국에서 제작하는 제3방송도 송출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제3방송은 각 가구에서 스피커를 통해서만 청취할 수 있는데,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내용을 주로 전달하는 수단

● 김영일 부상, 美와 협상용의(8/14, 연합)

-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한 이후 처음으로 14일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공식 표명, 김 부상은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
- 북한 고위관리가 해외 방문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김 부상은 제2차 북한-베트남간 차관급 정례 정책교류협의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음.

● 北, 南나로호 발사, 안보리상정 주시할 터(8/10, 북한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계획을 거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한이 러시아의 기술협조를 받아 곧 위성발사를 하게 된다는데 “4개월 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우리가 진행한 과학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규탄하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실행에 옮긴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언급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신들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로 “6자회담의 생명이고 기초인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회담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허물어졌는가 하는 것이 다 시한번 명백히 증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강조(8/8,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8일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민족적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며 “북과 남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책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얼마든지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 평양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만일 이명박 일당이 동족대결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파국상태에 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

- 신문은 이 논설에서 “이명박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 정책은 총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

## 다. 경제 관련

### ● 베네딕트 수도회, 北라선시인민병원 확장(8/14, 미국의소리방송)

-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종파인 베네딕트 수도회가 자신들이 후원하는 북한 라선시 연주동의 인민병원을 확장키로 하고 7월 초 수도회 수장이 북한을 방문, 이 병원의 외래병동 건립건에 대해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4일 독일의 정치주간지 ‘라이니셔 메르쿠어’를 인용해 보도
-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장인 노트커 볼프 수석 아빠스는 7월 초 라선 방문 때 두 차례 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이 중 한번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진료 받는 것을 직접 보고 후원금이 전용되거나 특권층만 병원을 이용한다는 일부의 의심을 불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독일 주간지는 소개
- 2005년 병원 개원식에도 참석했던 볼프 수석 아빠스는 “그 때에 비해 현지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택들의 외관이 밝은 색깔로 단장되고, 교통량이 상당히 늘었으며 택시들도 운행되고, 두 개의 주유소가 새로 생겼다고 설명
- 그는 “(이번 합의에) ‘외국인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했지만, 정작 파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

### ● 北, 철 생산·이용 규제 ‘흑색금속법’ 제정(7/23, 7/29, 8/4, 8/5, 민주조선)

- 북한이 철과 그 합금의 생산, 공급, 이용 및 파철 관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5개장 58개조로 구성된 ‘흑색금속법’을 제정, 민주조선 최근호의 ‘법규해설’ 코너를 통해 4차례로 나눠 새로 제정된 이 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언제 채택됐는지는 밝히지 않음.

- 민주조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흑색기본법의 기본(제1-9조),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제10-23조),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이용(제24-33조), 제4장 파철관리(제34-50조),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1-58조)로 구성
- 흑색금속의 범주에 대해 “철과 그 합금”이며 여기에는 “선철과 합금철, 입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
- 신문은 법의 제정 목적이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이용, 파철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 北, 비료 100만t, 알곡 1천만t 생산 목표(8/12, 조선신보)

- 북한은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시설을 전면가동하는 2012년, 비료 100만t에 알곡 1천만t을 생산함으로써 비료와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한다는 목표라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 말부터 토지정리, ‘자연흐름식물길’ 건설, 다수확 품종 개발, 과학적인 영농기술 도입 등 “(농업) 생산구조의 개선, 생산조건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해왔으며, “농업증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고리인 “비료의 정상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 가스화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 이 가운데 흥남비료는 동부지구에서 나오는 갈탄을, 남흥청년은 서부지구에서 나오는 무연탄을 각각 원료로 쓰는 설비를 갖추.
- 1970년대 세워진 남흥청년에서 지난해 설비를 시작한 석탄 가스화 공정은 곧 완공돼 올해안에 비료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흥남비료는 “내년에 한 개 계열을 설치해 2011년부터 여기서 생산한 비료를 농장들에 공급”하고 또 하나의 계열은 2012년까지 비료 생산의 체계를 완비할 계획
- 2012년 두 기업소의 공정이 “만가동”되면 “알곡 1천만t을 담보하는 대량의 비료를 전국의 협동벌에 제공하게 된다”고 흥남비료의 흥경남 부기사는 말했다. 이러한 전망은 “질소비료 1t을 쓰게 되면 쌀이 10t 나온다”는 ‘1:10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

● 노동신문, 기술혁명의 폭풍속에 뛰어들자(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1일 ‘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컴퓨터수치 제어(CNC)설비를 만드는 공작기계공장인 ‘련하기계’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임에도 제재를 뚫고 첨단 공작기계를 자체 생산해냄으로써 북한이 “21세기 경제발전의 기본열쇠”를 들어 쥐게 됐다고 주장하며 첨단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 련하기계는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련하기계에 대해 “나는 ‘련하기계’를 사랑합니다. ‘련하기계’는 나의 ‘구면친구’가 됐습니다. ‘련하기계’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훌륭한 상징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지난 1995년 4월29일엔 련하기계가 만든 첫 CNC기계를 보고 “‘련하기계’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이 련하기계를 집중지원하고 있음을 시사

● 북한제작 조형물 西阿 ‘상징물’ 되나(8/11, 연합)

- 북한이 세네갈에서 제작 중인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이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면서 서아프리카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세네갈 다카르 국제공항에서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는 첫 길목에 자리한 이 조형물은 아이를 품은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남편의 두상 등 일부만을 제외한 대부분이 10일 현재(현지시각) 조립된 상태
-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몸매로 사내아이를 어깨에 앉힌 채 아내를 품에 안은 조형물 속의 남자 모습은 금방이라도 대서양으로 돌진이라도 할 듯 역동적으로 표현돼 있음.
- 세네갈 압둘라이 와드 현 대통령이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이 조형물은 오는 12월 다카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3회 흑인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음. 세네갈 정부는 지난 1977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제2회 축전에 이어 30여년 만에 제3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재도약하는 아프리카의 모습과 문화적 우수성 등을 세계에 전달한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세웠음.
- 이 축전의 최대 이벤트로는 단연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이 꼽힘.

초대형 조형물로 그 높이만 50m에 이르면서 세네갈은 물론 서부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웅변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음. 실제 그 규모만을 보았을 때 이 조형물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동상 자체 높이가 46m인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4m 이상 높고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의 명물 '거대 예수상(38m)'도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특히 이 조형물을 북한이 만들고 있어 관심을 더하고 있는데, 세네갈 정부는 2008년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작을 북한에 맡겼음. 이에 따라 북한은 만수대해외사업부에서 200여명의 기술자를 세네갈에 파견했으며 제작비는 현금이 아닌 세네갈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침체 등으로 '제3회 흑인문화축전'이 최근 무기한 연기됐지만 세네갈 당국은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의 제막을 위한 준공식은 오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埃투자은행, 北 휴대폰 가입자 2년뒤 56만명 상회(8/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년 뒤인 2011년 말에는 56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이집트의 투자은행인 '나임 홀딩'이 이집트 이동통신회사인 오라스콤에 대한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예상
-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9천여명에서 6월 말에는 4만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올해 말에는 12만3천명, 2010년 말에는 31만명, 2011년 말에는 56만 8천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이에 따라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의 지분으로 설립한 '고려링크'의 총수입도 올해말 4천300만 달러에서 2010년 말에는 7천만 달러, 2011년 말에는 1억3천400만 달러로 해마다 두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나임 홀딩'은 예상
-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이익금을 북한에서 이집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라스콤 경영진이 북한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1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첫 공연을 10일에 가졌다고 조선중앙방

송이 11일 보도, 방송은 공연이 열린 5월 1일 경기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쳤다”며 “주조 외교대표와 국제기구대표, 외국 손님,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소개

- 올해 공연되는 2009년 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를 시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면서 제시된 주민동원용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주제로 한 장면과 “날로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새로 들어감.
- 조선신보도 아리랑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 판에서 “제3장 ‘행복의 아리랑’ 1경 ‘흰눈 덮인 고향집’이 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백두밀영 고향집을 형상한 1경”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의 아리랑 공연 “전통화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 2달간의 장기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北, 건설 수요 증가에 대규모 전자재기지 추진(7/18, 통일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시찰한 대동강타일공장은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 시한으로 잡고 있는 2012년 4월까지 2단계 건설을 완료해 대규모 전자재공급기지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신보는 7월 18일에 2단계 건설이 끝나면 이 공장에선 각종 기와와 타일, 수지가공 제품을 연간 2억2천500만㎡ 생산하게 된다고 밝힘. 2003년 7월 착공, 5년 9개월만인 지난 4월 15일 완공한 1단계에 이어 2단계 건설 공사에 들어간 이 공장에는 북한돈으로 총 105억원, 미화로 8천77만 달러(1달러=약 130원)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북한 경제규모로 볼 때 대규모 투자였음.
- 2단계 건설까지 포함해 총 75정보(1정보=3천평)에 들어설 이 공장에선 내외벽과 바닥 타일은 물론 대리석연마타일, 복합유리타일 등을 비롯해 자기기와, 위생자기, 수지가공제품, 조립식건재물, 석탄가스 등을 생산하게 되며 특히 전력공급을 위한 자체 발전소도 갖출 계획이라고 신문은 설명
- 김정일 위원장은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근처에 자리잡은 이 공장을 지난달 13일 시찰했을 때 이 공장에 대해 “나라의 건재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확립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언급

● 北, 주민 600만명 아사 위기 직면(8/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7월 전 세계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란 이중고로 6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FAO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쉐 팡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봄에 추수했던 보리와 햇감자마저 대부분 소비한 데다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북한이 올해 농사를 짓기에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부에서 170여만t의 식량을 들여와야 한다”고 언급
- 팡 박사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날씨도 좋았고, 강수량도 좋았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없었다”고 전하고 “비료가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는데 남한에서 (비료) 지원이 중단돼 생산량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보리나 햇감자 등을 추수했지만 이는 1년 생산량의 10%에 불과하고 추수 후 1~2달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파라솔 달린 네거리 교통정리壇 평양 명물(8/6, 조선중앙TV, 8/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요즘 평양의 네거리들에 희한한 교통지휘초소가 생겨나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여성 교통보안원(교통경찰)들이 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대형 우산이 달린 단(壇)을 소개

- 김 위원장이 교통보안원들에게 계절에 따라 근무용 옷과 비옷, 장화, 눈보호안경, 장갑, 화장품을 보내주고 이번에 단과 우산까지 설치하도록 해줬다는 것.
- 조선중앙TV도 지난 6일 평양 사거리들에 새로 설치된 단과 우산을 소개하면서 우산에는 “밤에도 교통지휘를 하는 데 유리하게” 조명등이 설치돼 있고 “신호봉을 좌우로 움직이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기둥은 곡선으로 돼 있다고 설명

● 北기상연구소, 北전역 가뭄 확산 예보(8/12, 조선중앙TV)

- 북한에서 장마철이던 7월 21일 이후 20일간 넘게 장마가 중단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 일부 지방에선 가뭄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가뭄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가 예보
- 중앙기상연구소의 리철수 부소장은 12일 방송된 조선중앙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장마철에는 지난 7월부터 20일까지 거의 열흘나마(넘게) 전반적 지방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린 후 21일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

● 北, 마약사범 급증에 체제부식 우려(8/11, 연합; 제291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보안 당국은 북한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이들을 체제혼란 요인으로 간주, 마약사범에 대해 보안사범 차원에서 단속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1일 소개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제291호에서 북한 노동당 보위부, 보안서, 사법검찰기관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마약단속을 강화한 결과 “적선에 흡수돼 간첩책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이 잡혔다”고 북한 보안 당국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소개, 이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마약사건 규모가 크거나 정치적 문제에 연루된 마약사건들은 모두 보위부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소식지는 전언
- 중앙당의 한 간부는 “보위부 자료를 보면, 마약 중독자의 숫자가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아 우리 사회 내부가 무질서해지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약하면 인차(이내) 적들에게 (북한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소개

- 북한 보안 당국이 북한 전역의 마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마약 생산지인 함경남도 함흥은 물론 새로운 마약 생산지로 급부상한 평안남도 순천시와 평성시 등에서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식지는 전언

● 평양서 민속전통 해설 ‘이동강의’(8/10, 조선신보)

- 북한 조선민족박물관의 강사들이 평양 시내를 돌며 근로자들에게 “민속전통을 해설하는 이동 강의”를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돌아보며 “근로자들 속에서 민속전통 교양을 원리적으로 할 데 대하여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박물관 측은 “연초부터 의욕적인 선전사업을 계획”했고 “이동 강의는 그 일환”이라고 신문은 소개, 박물관 강사들은 “선조들이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켜온 우수한 민속예법, 민속놀이, 민족음식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고 보도
- 이동강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방직공장, 기상수문국, 평양교예단을 비롯한 평양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비생산단위 뿐 아니라 학교와 인민반 등 주민행정 단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대북결의 잠정보고 시한 연장(8/16,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잠정보고서 제출 시한을 1개월 가량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구성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서를 패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양해했다”고 설명

-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8월 14일 외교통상부 송영완 국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9월 초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 제출 시한이 9월 12일에서 10월 초까지 1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
- 지난 6월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 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7인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패널 구성이 지연된 것과 관련, “전문가패널 선정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의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이냐, 다른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전문가패널은 1년간 유엔 사무국 소속으로 뉴욕에 상근하며, 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보조,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 검토, 분석,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회원국 등에 이행 개선을 위한 권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

● 인도, 나포 北 선박에 핵물질 없어(8/14, 연합)

- 인도 당국은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에서 핵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힘.
-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고위 경찰 관계자인 아쇼크 찬드는 “북한의 선박에서 어떤 핵 물질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 선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 인도 당국은 MV 무산호가 신고 있던 설탕 화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임.
- 인도 당국은 자국령인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온 후 자국의 승낙 없이 허트 베이에 정박했던 MV 무산호를 8일 6시간 가량 추격해 공포탄까지 쏘곤 끝에 나포, 인도 당국은 특히 해당 선박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미얀마 인근에 갔는지를 조사

● 홍콩, 대북투자 ‘조선펀드’ 조사(8/14, 자유아시아방송)

- 홍콩 정부는 대북한 투자기금인 ‘조선펀드’와 관련회사 2개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넘겨 대북 제재관련 현행 홍콩법에 대한 저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방송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이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조 선펀드와 이 펀드의 자금운영사인 ‘앵글로아시아’, 그리고 앵글로아시아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시아’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홍콩 역시 아직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 홍콩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외무성의 지침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법안의 제정을 준비

● **北지원 미얀마 땅굴, 핵시설 징후 없어(8/13,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의 민간 핵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굴착중인 것으로 알려진 땅굴들 사진에서는 핵시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연구소 폴 브래넨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지상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지하 또는 실내로 보이는 저장소와 댐 수문, 터널 입구 등이 보이지만 핵시설의 흔적은 없다”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중앙에 원자로 건물이 있고 그 둘레에 보다 낮은 지붕들이 있고 냉각탑을 갖추거나 물가에 위치해야 하는데 공개된 사진들에는 그 같은 특징이 없다”고 언급
- 그러나 ISIS는 정보소식통을 인용, 정밀 기계류가 북한에서 미얀마로 전달됐으며, 핵관련 물질 구입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북한 원자력총국 산하 남천강 무역회사관련 인물들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

**나. 북·미 관계**

● **김정일, 클린턴과 대화때 아주 적극적(8/15, 연합)**

-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

서실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동안 '아주 적극적이었다'(fully engaged)고 14일 밝힘.

-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 배석했던 포데스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화는 꽤 직설적(straightforward)이었으며 그는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

● 美대북제재전담반, 내주 亞 4개국 방문(8/13, 미국무부)

-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한국을 비롯,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
- 골드버그 방문팀에는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관계자들도 포함, 이들은 다음주 초 싱가포르로 떠난 뒤 방콕, 서울을 거쳐 도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태국과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회원 국가로, 두 나라는 역내 무역, 금융 중심지일 뿐 아니라 중요한 해상 국가"라고 언급, 실질적인 대북 금융제재 및 해상 화물 검색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 그는 "모든 방문 국가들에서 공중, 해상, 육상 화물 검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결의의 금융제재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이르면 8월 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문 날짜를 조율중"이라고 언급

● 美국무부, 북한내 혼란위험 알지 못해(8/12,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 사실상 그 가능성을 부인
-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북한)은 제 자리에 지도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요한 혼란(dislocation)이 있을 어떤 위험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

힘. 이어 “미국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 같이 그 지역의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언급

-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 왔다”고 거듭 지적

● 美, 北 광선銀 제재대상 추가지정(8/12, 연합)

-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7월 16일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중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회사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이들 기업과는 별개로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중국 단둥(丹東)에 지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음.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에 의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선광선은행은 이번 지정으로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의 기업과 개인도 앞으로 이 은행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됨.
- 美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했고 이런 자금들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의 자금이체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련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

● 北, 美와 관계개선 원하는 듯(8/10, 연합)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일(현지시각)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북결과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존스 보좌관은,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이뤄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indicated)”라고 언급

- 그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고 전언
- 그러나 존스 보좌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 (북한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얻은 것이 사진 촬영 말고는 없다”고 강조

## 다. 북·중 관계

### ● 中 룽징, 평양 전세기 관광코스 개통(8/15, 연합)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 등 북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곧 개통한다고 15일 밝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룽징시는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조선관광중국, 함경북도와 전세기 관광코스 개설 협약을 체결
- 이 관광코스는 룽징에서 북한의 청진에 도착, 어랑 비행장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간 뒤 3일간 머물며 개성과 판문점, 남포, 서해갑문, 묘향산 국제친선기념관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봄. 8월 10일 처음 공연한 2009년 판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 가능
- 중국은 지난 4월 투먼과 안투, 단둥 등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 만에 재개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외면 받아왔음. 이 때문에 당초 지난 5월부터 운행키로 했던 투먼-함경북도 남양-청진-칠보산 운행 관광철도가 지금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음.

### ● 中, 부녀연합회 대표단 방북(8/10, 조선중앙통신)

- 진연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中, 김정일 건강상태 매우 좋다(8/10, 연합)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중국 측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 받았다”고 밝힘.
- 이들은 또 “중국 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먼저 미국 기자들을 성공적으로 데려왔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북미 양자간 접촉을 개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고 전언
- 이들은 이어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라면서 “만약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북한의 권력 공백상태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김정일, 러 대통령과 축전 교환(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 64돌을 맞아 15일 축전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해방 64돌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로씨야(러시아) 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고 하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소개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면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극동지역에서의 일본군국주의 타승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쏘련군 병사들에 대한 추억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언급

마. 북·일 관계

● 日민주, 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제정 추진(8/14, 산케이 신문)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7월 21일 중의원 해

산으로 폐기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차기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보도

-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물검사 대상 품목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사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도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 방침을 명기한 바 있음.
-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에서 정한 핵·미사일 관련 물자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3 대남정세

#### ● 김정일 이름 석자 말했을 뿐(8/15, 연합)

- 북한에 억류됐다가 136일 만에 돌아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는 14일 가족들에게 “북한이 잡아갈 때 (협의를 적은) 통지문을 죽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다”며 “잡혀갈 건덕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유씨는 억류돼 있던 기간 개성 지역의 한 여관에서 북한 관계자 4명이 지키는 가운데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유씨 가족은 “개성공단 내의 여관”이라고 전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안에는 여관이 없다”며 “개성 시내의 민속여관이나 자남산여관 등으로 보인다”고 언급
- 유씨는 조사 중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언급, 통일부 당국자도 “유씨 몸에 외상은 없다”고 설명, 유씨는 억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풀려나기 전 “조사한 내용이 다 맞느냐”는 북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석방된 것으로 전해짐.
- 유씨는 석방 당시 상황에 대해 “어제(13일) 오후 북한 관계자가 갑자기 가자고 해 오후 3시쯤 여관을 출발했으며 석방 직전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현정은 회장, 김양건과 만찬(8/14, 연합)**

- 방북 중인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14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가졌다고 현대아산이 밝힘.

● **정부, 유씨 석방 대가 없었다(8/13, 통일부)**

-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지 136일만인 13일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으며 석방 대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유씨 석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측은 자기 측 출입국사업부에서 유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낭독하고 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소개, 또 “석방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고 밝힌 뒤 “정부는 억류 직후부터 석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대도 사업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천 대변인은 “정부는 유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측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현대아산 측은 자사 직원이 장기간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

- 천 대변인은 유씨 석방 및 귀환 경로에 대해 “유씨는 오후 5시 10분경 개성공단 내 북측 출입국 사업부로부터 현대아산측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이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로 다시 신병이 인계된 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현대아산 개성공단 총소장 등과 함께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전언

● **南단체지원 北 유일 전문안과병원 성과 커(8/12, 노동신문)**

- 북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인 ‘평양안과병원’과 이 병원 의료진의 강습을 받은 각 도의 인민병원 의료진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백내장 등의 안과 수술과 검진 활동을 펼쳐, 6·7월 두 달 사이에만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시력을 되찾았다고 노동신문이 12일 보도

- 평양안과병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한국라이온스협회가 건립을 지원한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이 정식 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북한에서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전문 안과병원이 없기 때문에 시급

- 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으로 보내기도 하며, 병원측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북한에 특별히 백내장이나 녹내장 환자가 많은지 여부는 파악된 게 없지만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을 지은 뒤 시력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한 기술과 자재를 많이 지원해 왔다”고 소개
  -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은 한국라이온스협회 주도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150여개 회원국에서 모은 800만 달러(80억원)가 투입돼 2005년 6월 15일 평양 통일거리에 건립됐으며, 연건평 1천 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76개 병상을 갖췄음.
  - 노동신문은 “보건성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평양과 각 도인민병원의 안과의료 일꾼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집중적인 안과 검진과 수술 의료봉사를 활발히 벌여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 北, 현정은 회장 평양도착 보도(8/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오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개성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통신은 현 회장의 평양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방북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에 따른 것임을 밝힘. 리종혁 아태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현 회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소개
- 현 회장은 10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길에 올랐음. 이번 방북에는 맏딸인 정지이 현대U&I 전무와 현대아산의 계약지원 담당 실무급 부장 1명이 대동했고, 이들은 2박 3일간 평양에 체류하며 북측 인사들과 유씨의 석방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17-08.23

8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별첨〉 현대-북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북 양어장 현지도(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개건된 평안북도 구장군의 구장양어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양어장을 돌아본 뒤 “우리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과 온천이 많기 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어를 전군증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현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이 수행
  
- 김정일, 평남 화전·탄광 현지도(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력 증산을 강조하고 2.8직동청년탄광에선 “공업의 식량인 석탄 생산을 늘이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석탄 증산을 다그쳤다고 전언
  - 현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박남기, 장성택 노동당 부장이 수행

### 나. 정치 관련

- 北매체, 조문단李대통령 면담 보도(8/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귀환한 북한의 특사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해 주목
  - 통신은 이날 조문단이 도착한 직후 조문단의 귀환 사실만 보도했다가 약 3시간 후 조문단이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며 “석상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언

- 통신은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남측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가하였다”고 덧붙임.
- 북한 매체들은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중인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적패당” 등의 혐구를 던지고 현인택 통일장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극심한 비난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이날 북한 조문단이 이 대통령을 면담해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이날 오후 2시 1분께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던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이 23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 북한은 이번 조문단에 대해 파견 사실부터 출발, 귀환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정을 신속히 보도

● **李대통령, 김정일 구두메시지 접수(8/23,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음.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발표
-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
-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언,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예방 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언급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조문단 접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외교관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
-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

석,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배석  
 - 한편 지난 21일 서울에 도착, 2박 3일간 서울에 머물렀던 북한 조문단은 이  
 대통령 면담 직후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김  
 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감.

● 김양건, 남북간 직접교역하면 상호이익(8/22, 연합)

-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22일 “(남북간)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사회·문화교류도 하고  
 의원교류도 하자”고 밝힘.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방문중인 김 부장은 22일 남측 인사들  
 과의 초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  
 며 이같이 말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전언
- 그는 또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아직 1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계적인 일류 공업단지로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
-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시대가 달라졌다. 냉전잔재는 가  
 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강조, 김 비서는 이  
 어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며 “대화에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석 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다 녹을 수야 있겠  
 느냐”고 언급
- 그는 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올  
 해는 작년에 비해 4배나 현지지도(현장시찰)를 많이 했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 회장도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건강하시다”  
 라고 설명
- 그는 정 의원이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  
 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지도자의 결심 단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언

● 北 조문단, “김정일 메시지 있다” 이 대통령 예방 제안(8/22, 연합)

-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북측 조문단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  
 지를 가져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

려짐.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2일 현인택 통일장관과 면담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 현 장관과 김 부장은 22일 오전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면담,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된 면담에는 우리 측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측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각각 배석했고, 면담은 1시간 24분 만인 오전 11시 44분에 종료

● **北 조문단 방한 이모저모(8/21, 조선일보)**

- 21일 오후 2시 59분, 북한 고려항공소속 76석짜리 러시아제 소형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방한
- 오후 3시 53분 김 비서 등 북측 사절단이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 방명록에는 '정의와 량심을 지켜 민족 앞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특사조의방문단 김기남'이라고 썼음. '조문단은 조화를 앞세우고 빈소로 올라감. 분향과 묵념을 한 뒤 조문단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김홍걸씨 등 유족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한명숙 전 총리,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수십 명과 악수를 진행,
- 조문을 마친 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김 비서에게 "김형오 국회의장이 차 한잔하자고 한다"며 면담을 제안했고, "그러자"고 답해 김 의장과 10여분 동안 면담이 이뤄짐. 김 의장은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 돌파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김 비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북남 화합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화답
- 오후 4시 35분 조문단은 국회를 떠나 미망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기 위해 동교동 김대중평화센터로 이동.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박지원 의원은 "김 비서가 함께 온 홍양호 통일부 차관에게 '(누구든) 다 만나겠다'고 했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펼쳤으니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언
- 김 비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전달. 그는 북측의 조의 메시지가 적힌 문서를 꺼내 읽고 난 뒤 이를 이 여사에게 전달함.

● 주러 북한 공사, 김 前 대통령 조문(8/22, 연합)

-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오승호 공사가 22일 오후 2시 45분께 (현지시간) 주러 한국 대사관 1층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 다른 2명의 북한 외교관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오 공사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조의를 표시
- 오 공사는 조문록에 “김 전 대통령의 애석하게 서거한 데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시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분향소를 지키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돌아갔음.
- 우리 측 외교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의 한국 대사관 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각지 북한 공관이 일제히 조문을 하는 것을 보면 본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北조문단장 김기남 비서, 21일부터 2일간 방남(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보내는 ‘특사 조문단’은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통신은 20일 조문단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힘.
-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공식활동에 대부분 수행하는 최측근으로 선전선동과 역사문제를 담당

● 공진태 전 부총리 사망(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공진태 전 정무원(현 내각) 부총리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전 정무원 부총리 공진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소개
- 공 전 부총리는 1971년 대외경제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외경제전문가로 1975년 부총리에 올랐고 1980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 겸 무역담당 부총리로 활동, 1985년부터 정무원 인민봉사위원장을, 1994년부터는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때 공직에서 물러났음.

● **노동신문, 김 전 대통령 서거·조전 실어(8/1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9일 발행된 신문 2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을 실었고, 4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전 5시 30분께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짧게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조전을 보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의 기사 작성과 편집은 전날 마감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조전의 문구 작성 등을 이미 18일 마무리하고 신문 발행에 맞춰 중앙통신을 통해 조전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오전 “(노동)신문은 2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전 남조선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을 신고...”라며 조전 게재 사실을 알림.

● **北외무성, 한·미 도발에 강경대처(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것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며 그 어떤 도발에도 강경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이같이 말하고 “사태는 우리가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기로 결심한 것이 천만번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국면전환 조짐, 南 정책전환 기회(8/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 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사실을 “북남 교착 타개의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남한의 ‘실용정부’가 “민족자주 궤도에 회귀”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8.16절전에 의한 북남 교착 타개의 돌파구’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0여일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북미간 현안을 논의하고 대화의 방법의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견해의 일치를 본 사실을 상기, “수개월간 지속되어온 제재와 자위적 조치의 응수에 의한 긴장 격

- 화의 고리가 풀리어 국면이 전환되어나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조류가 가시화되어 나간다면 제재 소동을 추동한 각국의 대결일변도 노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뚜렷한 선을 그어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여 남조선의 실용정부가 민족자주의 궤도에 들어서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강조, 대북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
  - 또 “(남한 정부가) 평양발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접수했다면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명박 정권이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정치공간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저들의 정책을 따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오판한다면 북남관계의 교착 상태가 제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신문은 주장
  - 신문은 끝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남 수뇌합의에 따라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였다”며 “이명박 정권도 이제는 선행한 두 정권의 행적을 진지하게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

● 北, 현대-아태 합의 주민들에 신속 전달(8/17,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매체들은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현대의 대북사업에 관한 ‘공동보도문’을 신속하게 보도
-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새벽 4시 2분,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오전 7시 20분 공동보도문의 전문을 보도한 데 이어 노동신문은 17일자 2면에 공동보도문을 실었음.
-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한 소식도 반복 보도하고 있음.

● 北매체들, 대화 의지 확인 요구(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대화 파괴자들의 간교한 낚두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북남 대화를 전면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고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반통일 대결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북과의 대화는 북의 태도와 입장에 달려 있다’, ‘북이 유화적

으로 나오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남한 정부측의 발언을 거론, 이같이 언급

- 신문은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통일과 분열, 대화와 대결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외우는 ‘대화’ 타령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요설”이라고 주장

#### 다. 경제 관련

##### ● 평양, 태양광가로등 시범 설치(8/22, 조선신보)

- 평양시 중심가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이 시범 설치됐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이 ‘태양빛 전지 가로등’은 평양시 창전네거리에 처음 설치됐으며 낮에 한번 충전후 3일간 야간조명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
- 소형 태양판 2개와 발광다이오드(LED)등, 자동조절장치, 축전지로 이뤄진 이 태양광가로등은 12m 높이에 설치된 50W LED등의 빛세기가 17럭스(ℓx)로, 같은 높이에 250W 나트륨등을 설치한 것과 같은 밝기라고 신문은 소개
- 북한은 평양시 가로등사업소 기술집단이 개발한 이 태양광가로등의 성능이 확인되면 평양 거리에 전면 설치할 예정

##### ● 北, 10년간 생산중단 비날론공장 내년 재가동(8/20, 조선신보)

- 북한이 ‘주체적 공업’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연내 완공돼 내년부터 비날론 생산이 10여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0일 보도
- 신문은 지난 2007년 시작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년에는 비날론이 다시 쏟아져 나온다”고 기업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소개,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얻은 카바이드를 원료로 합성한 폴리비닐알코올로 만든 합성섬유로, 북한에선 ‘주체섬유’라고도 부름.
- 1961년 5월 준공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5만t이지만 시설이 노후한 데다 원료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비날론 생산이 중단됐음. 신문은 기업소가 “생산공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날론은 단념하고 일부 중

간제품만 간신히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었고 “생산체계의 노후화는 촉진”돼 결국 “과거 10년간 비날론 생산은 중단돼 왔다”고 설명

- 생산공정이 완전 가동되면 500여종의 화학제품이 생산되며, 중간제품인 염화비닐은 경공업 원료로,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로, 염산은 발효간장 등 기초식품의 원료로 각각 쓰임.
- 신문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2.8비날론에서 화학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하여 경공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의 생산이 큰 지장을 받았다”며 “비날론의 생산 재개는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화학제품들의 공급체계도 다시 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 라. 군사 관련

### ● 北, 을지연습에 ‘전군 특별경계태세령’(8/1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7일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전군, 전민, 전국은 특별경계태세로 넘어갈 것”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북한군 육.해.공군 부대와 조선인민경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북한의 “하늘과 땅, 바다를 침범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하여서도 즉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명령하고, 전 주민들에게는 “오늘의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150일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시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는 이러한 명령은 “무모한 반공화국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한.미군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사소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도” 한다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해 “무자비하고 즉시적인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보도는 을지연습에 대해 북한을 “기습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
-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대변인 담화

를 내고 을지연습에 대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도발적인 북침불장난 소동”이라며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정책”과 남한의 “반공화국(북) 대결소동”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는 언제 가도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

## 마. 사회·문화 관련

### ● 평양 옥류관 새 메추리 요리 선보여(8/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양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이 메추리 요리를 새로 개발, 9월 1일부터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
- 메추리 요리 개발은 “메추리 요리는 옥류관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이름난 요리로 만들어 봉사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와 메추리 공급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보도, 옥류관은 김 위원장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본관 1층 2호실을 메추리 요리 전용 식사칸으로 만들어 운영

### ● 평양 15년 이래 최고 무더위(8/21,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등 “15년 이래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신문은 “평양은 한해치고도 가장 더운 때인 삼복(7.14~8.13)을 여러날째 넘긴 후이지만 30도 이상의 무더위는 아직 가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의 고온현상은 연례적인 삼복철 때의 무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
- 평양에선 중복(7.24) 이후인 7월 27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온현상이 시작됐으며, 말복(8.13)을 전후한 지난 12~16일에는 낮 최고기온 34도 이상을 기록, 특히 15일과 16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평균 36.5도로 올라 평년보다 7.3도나 높았음.

### ● 北, 여성들에 바지 착용 허용한 듯(8/9, 노동신문; 8/18, 자유아시아방송)

- 노동신문은 9일 ‘옷차림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

들에게 “단정한 바지” 차림을 권장하면서 입어도 좋은 바지와 피해야 할 바지를 조목조목 열거, 신문은 특히 “선군시대 생활문화가 날로 활짝 꽃피는 속에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성들의 단정한 바지나 남자들의 T셔츠(셔츠)도 옷차림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소개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선양 한국상품 전문도매상 등의 말을 인용, 평양거주 단골 상인 등이 8월부터 “국가에서 여자들에게도 바지를 입도록 허용했으니 남조선제 여자 바지를 가져다 팔고 싶다”며 견본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북한이 여성들의 바지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상인은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밝은 회색이나, 연한 연두색 또는 청색계통의 점잖은 색깔이어야 하며 무늬가 있는 바지, 소위 나팔바지라고 불리는 통이 넓은 바지, 또 체형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달라붙는 바지, 반바지나 청바지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소개
- 노동신문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 천한 색으로 보기 싫게 해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하며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고운 천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입는 것이 좋다”고 바지착용 기준을 제시
- 신문은 “진바지(청바지)나 치마형식의 바지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여성들의 미감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바지 기슭을 걷어 올리는 것, 허리부위가 꼭 조여지지 않고 아래로 처지는 것, 허리 단을 귀 접어놓는 것 역시” 여성들의 외모와 건전한 생활 풍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 또한 여성들의 바지 색깔은 “어두운 것보다 계절과 나이에 어울리는 밝으면서도 고운 색깔”을 선택할 것을 신문은 주문

## 2) 대외정세

### 가. 안보리 제재 관련

#### ● 美골드버그, 미얀마 대북제재 준수 주시(8/21, 연합)

- 미국은 미얀마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 준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필립 골

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21일 밝힘.

-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있는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 도착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유엔) 결의안의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미얀마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가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인도, 본토서 北무산호 추가 조사(8/20, 연합뉴스)

- 인도 당국이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본토로 예인해 추가 조사하기로 함. 앞서 인도 정부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당국이 억류 중인 무산호를 카키나다로 옮기라고 지시
- 인도 당국은 최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MV 무산호에 핵 물질이 실렸다는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음. 익명의 인도 당국 관계자는 카키나다에서 화물을 하역해 좀 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 인도 정부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온 후 자국의 승낙 없이 인근에 정박했던 무산호를 6시간 가량 추격해 공포탄까지 쏜 끝에 8일 나포,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선박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

나. 북·미 관계

● 北김명길 일행, 라스베이거스·LA 방문(8/22, 연합뉴스)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면담을 마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일행이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21일 밝힘.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김 공사와 북한대표부 백정호 참사가 미 당국에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카지노의 수도(라스베이거스)를 ‘개인적으로 여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확인

● 리처드슨, 北 외교관과 회동(8/19, 연합)

-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과 회동, 리처드슨 주지사의 대변인 앨러리 레이 가르시아는 18일 “주지사가 내일(19일) 뉴멕시코 샌타페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만난다”고 언급
- 이번 회동은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9일 하루 종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언, 김명길 공사는 대표부 인사 1명을 대동하고 리처드슨 주지사를 방문할 예정
- 가르시아 대변인은 어떤 주제를 갖고 양측이 회동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측이 뉴멕시코주에서 개발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 그러면서 “주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아리랑 공연 함께보자’, 클린턴, ‘음식 훌륭하다’ 판청(8/18,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4일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석방 교섭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Clinton) 전 미 대통령에게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함께 관람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워싱턴의 한 외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아리랑 공연 입장권이 있으니 함께 보자”고 3번 제안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음식이 매우 훌륭하다”는 등의 말로 화제를 돌려 이를 거부했다고 RFA에 소개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전 미 국무부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지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美국무부, 北 조치 충분한 것 아니다(8/17,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현대그룹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다른 길

로 가기로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현대그룹간의 합의에 대해 “명백히 이는 환영할 조치들”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의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조그만 제스처로 환영할 조치”라고 평가
- 그는 이어 “이런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은 본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언급해 왔다”고 언급,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그들이 2005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와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힘.
- 특히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근본적인 계산을 했음을 보여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

#### 다. 북·중 관계

##### ● 中우다웨이 부부장, 방북(8/21, 조선중앙통신)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7일부터 21일까지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우 부부장이 방북기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예방하고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언, 통신은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조(북)·중 친선관계와 지역정세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우다웨이 부부장은 방북 기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소개

##### ● 北-中 교역 크게 줄어들어(8/19, 블룸버그 통신)

- 북한이 3개월 전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북한-중국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국 접경 단둥 현지 르포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 여파로 양측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19일 보도

## 라. 북·일 관계

- 6·15실천위, 日 역사왜곡 반대 “전민족적 운동”(8/22,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2일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 99주년을 맞아 결의문을 발표하고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으로 이조(조선)왕국을 포위하고 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불법무효”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독도강탈 기도와 역사왜곡 책동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과 해외측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또 일제의 침략과 약탈, 반인륜적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며 “일본의 재침책동과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할 것”이라고 주장
  
- 방북 조총련여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8/21, 조선중앙통신)
  - 방북한 권경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일꾼대표단이 21일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삼일포특산물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日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확인(8/20,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북한의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조대위)’는 20일 일제시기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운영하는 고베조선소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가 평안도, 경상도 등에서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
  - 조대위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연행됐던 조선인 피해자들에 관한 일본측 자료 등에 들어있는 42만7천129명의 명단에 기초해 북한지역 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3 대남정세

- **北 조문단, 체류 하루 연장, 고려항공 전세기 평양 돌아가(8/22, 통일부)**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 사절단 일행이 귀환을 하루 연기, 23일까지 체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2일 밝힘. 북한 조문단이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 이들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던 고려항공 전세기는 22일 평양으로 돌아갔음.
  -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고려항공 전세기는 22일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계류장에서 5시간 가량 대기하다 오후 6시쯤 이륙해 북한으로 돌아감. 조문단은 빈소에 분향한 뒤 22일 오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청와대를 예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2시쯤 돌아가려던 일정이 하루 연장, 하지만 고려항공 전세기는 승무원들의 체류 문제가 걸려 있어 이날 김포공항에서 대기하다 평양으로 되돌아감. 전세기는 전날에도 북한 조문단을 김포공항에 내려준 뒤 곧장 이륙해 평양으로 돌아갔었음. 고려항공 전세기는 23일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해 조문단을 태울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연안호 풀어주라고 군부에 얘기했다(8/21,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어선 '800 연안호' 송환 문제와 관련, "북한 군부에 풀어주라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1일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 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연안호 선원 4명이 조만간 억류에서 풀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한 북한 조문단 파견기간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北, '12·1조치' 해제 남측에 통보(8/21, 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온 경의선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조치(12·1 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북한은 또 12·1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했던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 의사무소도 재가동기로 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12·1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는 북한이 지난주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과의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육로통행과 체류를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했다’고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를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 3회’로 축소했고, 또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 200대’에서 ‘250명, 150대’로 줄였었음.

● 北, 임동원·박지원에 조문 통보(8/19, 연합)

- 북한은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방침을 정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김 전 대통령 측에 통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19일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명의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한 국제 팩스로 ‘김대중 평화센터’ 소속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앞으로 조문단 파견을 통보

〈별첨1〉 현대-北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는 17일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백두산관광을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시작하며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이 같은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면담하면서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면서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이다.

1.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2.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 우리 민족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24-08.30

8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별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강원도 문천중 현지도(8/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 바로 위의 문천시에 있는 문천중학교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문천중학교는 고 김일성 주석이 정전직후인 1953년 10월 방문해 새 교사의 터를 잡아준 곳이어서 김 주석의 "수많은 혁명사적들"이 있는 곳'이라고 통신은 설명, 김 위원장은 이 학교 현지도에서 "초등, 중등 교육단계에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강화해 재학기간에 컴퓨터를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원산제염소 현지도(8/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의 원산제염소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원산제염소에서 김 위원장은 "원산제염소, 광명성제염소를 비롯한 많은 제염소들이 일떠서고 그 위력이 충분히 발휘"돼 "소금 생산이 불가능하던 동해안에 강력한 제염공업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말하고, 강원도가 "원산청년발전소와 제염소 건설을 비롯한 자연개조 사업과 전반적인 경제 사업에서 최근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과 리철봉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박남기 노동당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5월11일제련소' 현지도·공연관람(8/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개건 확장된 '5월11일제련소'를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뮤지컬의 일종인 '노래이야기' 공연을 관람했다고 이날 오후 5시께 보도한 후 2시간 만에 제련소를 현지도했다고 보도
  - 현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박남기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 부장,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이에 앞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님 영웅되셨네’라는 제목의 노래이야기를 김기남 노동당 비서, 노동당 부장 및 1부부장들,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 외에 리철봉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와 함께 관람했다고 보도

● 北조문단이 전한 김정일 건강(8/24, 연합)

-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배나 현지도(현지시찰)를 많이 하셨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 회장이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건강하시다”라고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언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김 비서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클린턴 대통령과 현정은 회장이 봤으니까 제3자들이 본 객관적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김 위원장이) 정신력으로 (건강악화를) 극복했다”고 얘기했다고 24일 아침 출연한 라디오방송에서 소개

나. 정치 관련

● 조선신보, 정부차원서도 北이 내민손 잡아야(8/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8일 ‘금강산에서 확인하는 수뇌합의 정신, 흠어진 가족, 친척 문제의 해결 방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북한 특사조문단의 방남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대가 내밀었던 손을 맞잡아야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발전의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날 북측 적십자 관계자들이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내내 “불신과 대결의 낡은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고 보도
- 신문은 특히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데 “수뇌합의들(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실용정부’의 태도와 이행 의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아직은 가시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결론은 저절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 “상봉행사가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현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북남선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거듭 두 문제의 연계성을 강조
- 신문은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현정은 회장 면담, 특사조문단의 서울 파견 등을 들어 “북의 주동적인 조치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북한의 주동성을 강조

● **北매체, 이산가족 추석 상봉 합의 보도(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오후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한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 중앙통신은 “북남적십자 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진행할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사이에 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하였다”고 보도
- 통신은 “또한 북과 남은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북남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北매체들 대남 논조 변화(8/28, 조선신보)**

-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대남논조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신문은 ‘대일 논조는 강경 일변도, 총리의 실명 올려 강도 높게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8월 한달간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를 개관하면서 “특히 남조선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리명박 역도’, ‘역적패당’ 등의 표현으로 리명박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여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북측 조문단 면담 “이후에는 그러한 단어가 자취를 감추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고 설명
- 그러나 “대일논조는 강경 일변도”라며 “언론들은 일본 총리의 실명을 직접 올려 규탄”하는 등 “한마디로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 자세를 일체 안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대조점을 분석

● **노동신문, 청년들은 수뇌부옹위 결사대(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청년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수령결사옹

위” 정신을 강조하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

- 신문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는 제목의 청년절 기념 사설에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이 기세를 올리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온 나라에 필승의 기상이 차넘치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문

● **조선신보, 상봉행사, 이명박정부 남북선언 첫 이행과정(8/27, 조선신보)**

-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담 첫날 기조발언에서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점”이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첫 이행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노동신문, 美에 대북정책 전환 요구(8/26,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에 대해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을 조선침략의 좋은 기회”로 보고 “제재소동”과 “무력공갈”을 펴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호전광들은 분별있게 처신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또 “미국은 저들(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믿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고압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만약 미제가 또 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총동원하여 천백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또 ‘핵 선제공격을 북침전쟁 전략으로 내세우고’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해 “핵 선제공격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기본과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힘의 방법에 의한 대조선(대북) 침략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미국은 말로는 북침 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평화 타령을 곧잘 하지만 실지로는

핵 선제 공격수법에 의한 대조선 압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 北, 민주콩고 대사에 리명철 임명(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콩고 민주공화국(민주콩고) 주재 대사로 리명철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리 대사는 외무성 연구원, 가나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을 지낸 것 외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 북한은 민주콩고와 1972년 12월 15일 수교했으며 경제과학기술협정, 문화협조협정, 무역협정, 정부간 공동위 창설합의서 등을 체결

● 장성택 형 장성우 軍차수 사망(8/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형으로 북한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의 계급)인 장성우(76)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장성우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전했으나 그의 사망 일시나 사인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음.
- 1933년생인 장성우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6.25전쟁 때 인민군 중대장으로 참전해 낙동강까지 다녀온 북한의 ‘혁명 2세대’임. 1988년 인민무력부 정찰국장, 1991년 사회안전부 정치부장, 1992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등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에서 정찰과 정치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1995년 호위총국장에 임명되었음.
- 1983년 미얀마(옛 버마) ‘랭군 폭파 테러’ 사건의 총지휘 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1987년께 자신이 타던 승용차를 선물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그의 동생이자 장성택 부장의 형인 장성길 북한군 중장(우리의 소장급)은 지난 2006년 사망

● 평양시민들, 조문단李대통령 면담 ‘참 잘됐다’(8/25, 조선신보)

-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토의했다는 소식에 ‘평양시민들’은 “참 잘됐다”는 반응이라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 조선신보는 “특사 조의방문단의 파견 소식은 며칠동안 평양에서도 관심사” 였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평양시민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북남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등의 “일련의 사태 진전에 드놀지(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이어 특사조의단의 이 대통령 면담이라는 “갑작스러운 국면전 환에도 평양시민들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고 말하고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장군님(김정일)의 뜻이다”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남측에선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흐름을 “통민 봉관으로 규정하며 여론을 오도”했으나 “북측에는 오늘의 사태 진전을 긴 장완화를 위한 일과성의 변화로 보는 관점은 없다”고 말하고 “조선반도(한 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전환돼 가고 있다”며 “특사조문방문단의 청와 대 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가’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
- **北총참모장, 제재에는 무자비한 보복(8/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은 24일 “제재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 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그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 도’ 49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기습 선제타격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며 “우리가 강력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마련해 놓은 것이 천만번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
  - 또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 고 중요부문들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며 “당의 농업혁명방침, 경공업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자체로 원만 히 해결하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변”을 이룩할 것을 요구

## 다. 경제 관련

- 김정일,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8/28, 조선중앙방송; 9월호, 조국)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평양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 28일 발표한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보수 개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북한 내각 수도건설부의 김경모 국장은 이날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건물과 시설물들을 보수 개건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봉사망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 하며 건물 장식도 품을 들여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건물과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외장재 문제, 도로명 개칭 등의 대책도 내놓았으며,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지금 평양시에서는 타일붙이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
  - ‘조국’ 9월호는 ‘평양 리모델링’과 관련, 북한 당국이 “2012년을 목표로 여러 개의 기본 거리들을 새로 형성”하고 “10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목표는 높고 시간은 짧다(8/2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 달성 목표 해인 오는 2012년까지는 “몇 해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전, 선동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해 나갈 것을 당·군·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그는 지난 6월 25일 이들 간부를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담화 닷새째분을 통해 소개
  - 김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담화에서 2012년까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비상히 높고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올해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주문,
  - 그는 올해를 “분수령이 되는 관건적인 해”라거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규정하고 올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당 창건 65돌이 되는 다음 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대, 당원, 청년, “혁명의 지휘 성원인 우리 일군(간부)들”이 앞장 설 것을 그는 요구

● 재개발 들어간 금강산 온정리마을(8/28, 연합)

- 금강산 관광지 인근 온정리 마을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음. 그동안 관광객들의 시선을 감안, 콘크리트 담 등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해왔지만 이번에는 과거 있던 가옥들을 해체한 뒤 새롭게 건설, 새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3층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건물은 외부 공사에 이어 기와를 얹는 작업까지 마치고 내부공사에 들어간 곳도 있음.
- 북측은 2008년 10월 온정리 마을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주택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11월에는 견본주택부터 시공에 들어갔다는 후문, 올해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3월 공사를 재개, 대부분의 건물 외벽 공사를 완료, 재개발 지역의 총 인구는 1천200세대 5천명으로, 재개발 면적은 19만9천여㎡이며 원래대로 보존되는 지역은 2만3천㎡의 학교뿐임.
- 현대아산 관계자는 28일 “북측은 ‘사회주의 선경(仙景)’을 조성해 온정리를 북한 내 최고 마을로 꾸민다는 계획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언급
- 건물들이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완공되면 입주주민들은 대부분 금강산의 현대아산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온정리 마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작년 7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일자리를 잃게 된 현대아산 사업장의 북측 종업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거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 北, 자금난에 ‘장롱달러’ 유통대책 부심(2009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월호는 ‘은행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경리를 바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며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휴화폐 자금을 최대한 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 학보는 “은행의 역할을 높여 자금유통 사업을 잘 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재정 예비의 하나인 유휴화폐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원조나 차관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재정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설명
- 김일성대 학보는 특히 은행의 ‘자금유통 사업’ 강화책으로 “저금형태와 대부형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분 확대”해 “신용사업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주장, “은행과 기업소, 주민사이의 신용거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현실을 감안해 저금과 대부 “형태를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여야 저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의 모자라는 자금의 특성에 맞게 대부를 올바르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임.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면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이자 등의 문제로 인해 거액 보유자일수록 저축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해삼 2t은 알곡 100t 생산 효과(8/23, 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박진길 교수(박사)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식량난 해결 대책으로 재배어업의 중요성을 강조, 그는 “해삼을 양식해 정보(1ha, 약3천평)당 2t이상 거뭍들이면 알곡 100t 이상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
- 그에 따르면 북한에선 개간된 간석지나 바닷가에 건설한 양식못에 바닷물을 순환시키면서 큰 새우, 만밥조개, 해파리, 참게 등을 기르고 있으며 “특히 해삼 양식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 김정일, 주공전선은 경제전선(8/2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강행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그는 지난 6월 25일 당·군·국가경제기관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이 담화 나흘째분을 통해 소개

- 그는 국방공업에 이어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4대부문 중에서도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금속공업 부문을 치켜세우는 것”이라고 제시
- 그는 자신이 국제노동절인 5.1절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이들과 연관된 금속공업분야 노동자들을 평양으로 초청, 각종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대규모 ‘축포야회’를 보여준 것도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열쇠를 쥐고 있는” 이 부문 노동자들을 고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
- 이어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주문하면서 희발발전소를 2012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고 금야강발전소, 예성강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다른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

● 김정일, 유엔 제재기간 고급차 계속 수입(8/26, 日지시통신)

- 김정일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에 의해 고급차를 포함한 사치품 대북 수출이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고급차 수십대를 몰래 수입한데 이어 올해도 벤츠 등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6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일본 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00여대의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호 등의 목적으로 매년 차량 구입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 이후인 2007년에는 영국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10여대를 구입한 바 있고, 2008년에도 벤츠600 등 승용차 20여대를 수입
- 김 위원장은 2009년에도 벤츠 승용차와 버스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 금액은 무려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대북 수출 제재를 피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자를 중국 회사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 지난해 건강이상설이 퍼지기 전후부터는 유럽에서 수백억원대의 X레이 기기 등 최신 검사 장비와 응급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데도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중·단거리 미사일 18기 발사 및 5월 25일의 2차 핵실험에 최소 6억 달러에서 최대 9억 달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 김정일, 위에서 못 대주니 자력갱생하라(8/26,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나갈 수는 없다”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 것을 북한의 당·군·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이들 간부를 모아놓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으로 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그 담화 사흘째분을 소개

● 김정일, 6월 25일에 ‘경제 담화’(8/2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 노동당과 군대, 국가경제기관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고 드라이브를 거는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개월여 뒤인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필생의 염원이었다”며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자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거세찬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석탄 수출 전면 금지(8/24, 연합뉴스)

- 북한이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무연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책인 것으로 보임. 9월 17일 종료되는 150일 전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운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막바지에 접어든 150일 전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간산업 정상화가 선결 요건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전

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연탄 확보가 시급한 형편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5천500cal/kg 이상의 고품질 무연탄을 수출 해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무연탄은 3천500-5천 cal/kg의 저질인데다 이마저도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전력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음.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광산과 생산시설에 공급되는 전력 이 하루 12~13시간에 불과하고 전압도 불안정해 광산과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7월 초 김영일 총리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한 북한의 내각회의에서는 전력난 해소 방안이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내각에 지시

● 北도 ‘녹색제품’, ‘녹색장벽’에 눈돌려(2009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2호는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환경관리 체계에 따르는 녹색장벽을 통하여 제품 개발과 생산, 이용 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의 적용과 함께 그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녹색제품을 더 많이 설계하고 개발하는 나라가 국제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분야 종사자들에게 녹색장벽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환경보호 사업을 더욱 다그치고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라. 군사 관련

● 이란 미사일기술, 北 추월(8/28,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북한보다 더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역전수’되거나 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북한의 핵기술이 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은 최근 발표한 ‘이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

- 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반면 이란은 2월 로켓 발사에 성공한 사실 등을 들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분석
- 루빈 전 국장은 북한은 3단계 발사체 기술을 도입했고 장비들도 매우 크고 무거웠던 반면 이란은 자체 기술로 가벼운 2단 로켓 ‘사피르 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지적, 또 이란은 지난 5월 고체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사거리 2천km의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 ‘세질 2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고체 연료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
  - 미국의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연구원도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의 고체연료 추진기술을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이미 액체추진 로켓 기술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 고체추진 기술이 북한에 전수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
  - 그레그 털먼 전 미 국무부 전략무기비확산담당국장 역시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앞섰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시험발사 성공 한번 만에 실전배치됐지만 이를 본떠 만든 이란의 ‘샤하브 3호’는 여러차례 시험발사 이후 배치돼 성능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전수될 경우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며, 북한과 이란이 핵관련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맞교환할 가능성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부언

## 마. 사회·문화 관련

### ● ‘요덕’ 보다 무시무시한 ‘전거리노동교화소’(8/29, 조선일보)

-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5월 초 “한 명의 탈북도 허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뒤 대대적인 탈북자 때려잡기가 시작, 국방위 명령은 핵실험 뒤 국제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자 대량 탈북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국방위는 주민 강연도 대대적으로 개최, 골자는 “말로 탈북자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무단으로 건너면 ‘민족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 그 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게 함경북도 전거리의 ‘전거리노동교화소’임. 이 교화소가 탈북자 전용 수용소로 개편됐으며 일반 교화소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고문 구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짐.

- 최근 전거리 교화소에서 출소한 탈북자는 “탈북자 전용으로 바뀌면서 탈북자들이 무리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주장, 그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미처 시체를 치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
- 북한은 국경을 넘은 자들은 남한행이나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어도 ‘민족반역죄’로 다스리라는 지시에 따라 무조건 3년 이하의 교화형을 받아 전거리 교화소에서 강제노역에 처하고 있음. 강은 건너지 않아도 압록강이나 두만강가에 이유없이 접근하다 단속에 걸려든 자까지도 탈출기도자로 몰아 교화소에 수감시키는 통에 북-중 국경 북측의 강변에는 군인들 외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며 그밖에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외부와 연계하는 자들도 탈북자 수준의 처벌을 받고 전거리로 끌려가고 있음.

● **北중부 일부 최근 300mm 이상 폭우(8/28, 조선중앙TV)**

- 최근 북한 황해북도 토산군을 비롯해 중부 일부 지역에서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
- 중앙TV는 최근 북한 기상의 특징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린 것”을 들고 황북 토산 346mm, 강원도 철원 331mm를 비롯해 황북 금천 259, 름산 251, 신계 244, 서흥 238, 평산 223, 황남 신원 243, 신천 222, 장연 219, 강원도 이천 234, 평강 207mm였다고 보도

● **北세밀화 대가, 선우영 사망(8/15, 문학신문)**

- 북한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화가 선우영이 지난 7일 6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문학신문이 15일 보도
- 선우영은 60여점의 작품이 북한의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북한 최고의 화가로 꼽히며 세화기법을 위주로 한 주제화, 풍경화 등에서 “진지하고 섬세하며 생동적인 화풍”으로 ‘진채세화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었음.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 北선박 UAE 억류, 유엔 결의후 첫 제재(8/29, 연합)

- 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신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금수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첫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 이번 UAE의 선박 억류 조치는 실제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불법 무기를 확인하고 이를 안보리에 통보, 결의 1874호의 의심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즉각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토록 규정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이 특징
-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 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해 UAE 당국이 이미 충분히 조사를 완료했음을 시사

#### ● 美골드버그, 개성·금강산, 유엔제재와 무관(8/24, 연합)

-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4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힘.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오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내 평가”라고 언급
- 골드버그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안보리 제재의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소개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의 달성뿐만 아니

라 이를 위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며 “핵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또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바라는 것”이라고 답변

## 나. 북·미 관계

### ● 北정부관계자, 8월 중순 비밀리에 방미(8/28,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대외 유화적 제스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부 인사 4명이 이달 중순 미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이들의 방문은 조(북)·미 민간교류협회(KAPES) 대표단이라는 민간 차원의 방미 형식으로 8월 15~19일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민간 초청으로 북한 인사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북지원 관계자 등과 만났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이들의 방미는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방미 대표단은 모두 북한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았다”고 언급
- 방미 대표단에는 최일 조미 민간교류협회 부회장과 협회소속 고위 관료, 통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도 이들의 방미 일정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짐. 구체적인 방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인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퍼레이션 USA’를 비롯한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특히 오퍼레이션 USA의 식량, 의약품 저장 창고 등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가 주목됨.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방북, 한국계 유나 리를 포함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벌인 직후 이뤄진 것으로 두 사안의 상관 여부가 주목
- 외교 소식통은 “북 대표단의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이들 간의 직접 접촉

은 없었다”면서 “말은 민간 교류지만, 미국이 북한을 조금 풀어주려는 것 같다”고 언급.

- 한편 북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도 만나 어린이들을 위한 두유 공급, 밀가루와 콩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황해북도에서 이동식 식수 공급사업도 시작키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北 6자회담 복귀해야 보즈워스 방북(8/25,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25일 공식적으로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특별대표든, 성 김 6자회담 대표든 현재로서는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측이 우선 ‘6자회담 복귀·비핵화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동의할 것을 재차 강조, 북한은 이에 앞서 보즈워스를 초청하고, 빌 리처드슨(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서도 대화를 요청했음.

다. 북·중 관계

● 中방송사, 北영상물 제작했다 혼쫓(8/30,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SMG)이 북한 사회를 조망하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북한측으로부터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항의를 받고 곤경에 빠졌음.
- 지난 7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SMG이 북한측의 분노를 사회사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중국 언론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중국 관영 중앙(CC)TV에 이어 중국 제2의 언론 그룹인 SMG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직접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의 영상 다큐멘터리를 방영
- 이에 앞서 SMG 제작진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열흘 가량 북한에 머물면서 촬영
-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SMG가 북한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고 비판한 뒤 외교채널을 통해 베이징 당국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전언, 북한이 문제로 삼은 영상

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50일 전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북한측의 항의를 받은 베이징 언론 당국은 8월 초 리루이강(黎瑞剛) 총재를 포함해 경영진과 간부진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다큐멘터리 제작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언론사가 북한측의 분노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지난 2004년 베이징의 정치·경제관련 잡지인 ‘전략과 관리’라는 잡지는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폐간된 바 있음.

● 北경제무역대표단, 中박람회 참가(8/29, 평양방송)

- 북한의 경제무역대표단(단장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 창춘에서 열리는 제5차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中, 北 준수시 제재중단·해제 검토해야(8,28, 미국의소리방송)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되며, 북한이 이 결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 또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특히 “만일 북한이 대북 결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보도

● 北, 中 단동에 영사지부 정식 개설(8/26, 연합)

-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의 단둥(丹東)에 주선양(瀋陽) 단둥 영사지부를 정식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음.
- 26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이기범 주선양 북한 총영사 등 중국 주재 북한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 등 단둥 영사지부 개소식 행사를 개최, 개소식 행사에는 단둥시 등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참석
- 단둥 지아디(佳地)광장 A좌 21층에 마련된 북한의 단둥 영사지부에는 영사급을 포함, 2명이 배치돼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단둥 영사지부는 그동안 선양에서 처리했던 단둥지역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담당
- 규모는 작지만 단동에 외국의 공식 외교 공관이 들어선 것은 북한 영사지부가 처음임. 연간 20여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중간 교역물자의 70% 이상이 오가는 단둥은 북한의 전략적 대외무역 요충지임.

라. 북·러 관계

● 러, 北 핵·미사일실험 대비 방공망 배치(8/26, 연합)

-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비, 극동 지역에 최신 방공망을 배치했다고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26일 밝힘.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중인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우리는 그 곳(극동 지역)에 S-400 사단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 국경 인근에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상태라고 언급

3 대남정세

● 연안호 귀환(8/29, 연합)

- 7월 30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강원 고성 거진항 선적 '800 연안호'의 선원 4명과 선박이 8월 29일 무사히 속초항에 도착, 연안호와 선원 4명은 29일 오후 5시 고성군 저진 북동방 16마

일 지점(북위 38도 37분, 동경 128도 44분) NLL 상에서 북측으로부터 해경 경비정에 인계됐으며 오후 8시 25분께 속초항으로 귀환

- 속초해경 등 관계 기관으로 이뤄진 조사단은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의 이상 여부를 선상에서 1차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 연안호(29t급)’는 7월 30일 오전 5시 5분께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제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었음.

● **남북, 9월 26일-10월 1일 상봉 합의(8/28, 연합)**

- 남북은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2007년 10월 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 만에 재개되게 됐음.
-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서에서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할 것임을 시사
- 또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의제를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북측이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 등의 지원문제 등도 다룰 여지를 남겼음.
-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과 추가 상봉 문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국한”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들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는 못했음.
-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국군포로 문제 등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
- 남측은 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으로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원칙,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

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회담 들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의서에 따르면, 9월 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가량의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됨.

● **남아공 월드컵 남북 공동 응원 추진(8/28, 연합)**

- 2009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 때 남북한이 공동 응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교류협력 사업 점검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 중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은 27일 “남북한이 나란히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만큼 월드컵 무대를 남북 화해 및 협력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할 것(8/27, 연합)**

- 현인택 통일부장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해선 “유엔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북한의 영유아나 질병에 대해선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원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음.
- 그는 최근 북한 조문사절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 “조문단은 조의를 표명하러 왔고, 사전에 남측 당국자와 협의가 없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힘.
- 현 장관은 또 북한 억류 136일 만에 석방된 현대아산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씨에 대해선 “석방 대가는 없었다”고 답변

● **경기도, 北산업단지 조성 참여 제안 받아(8/27, 연합)**

- 경기도는 최근 남북교류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평양 인근 스포츠

용품 산업단지(33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았다고 27일 발표  
 - 도는 제안 검토를 위해 조만간 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 방북단은 현지를 돌아보며 사업 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북한내 양묘장 운영, 양돈단지 조성, 벼농사 협력 등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음.

● **유성진씨, 일부 합의위반·北강압조사(8/25, 연합)**

-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 만에 석방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44)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25일 발표, 그러나 정부는 유씨가 장기간 억류된 채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 내용에 대해 시인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

●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재연결(8/25, 연합)**

- 통일부는 25일 북측이 2008년 11월 이후 단절한 판문점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채널(적십자 채널)이 이날부로 복원됐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측은 오늘 오전 9시 47분 판문점 직통전화 채널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북측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들이 정상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통지해왔다”며 “이로써 남북적십자간에 직통전화 연락채널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별첨1〉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남북은 28일 적십자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호 100명씩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고 특히 단체상봉은 금강산이산가족 면회소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남북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회의서는 9월 1일 쌍방이 각기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 100명은 9월 17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 하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의 원만한 보장을 위해 선발대사업을 상봉시작 5일 전부터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09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영철,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 월간 북한동향 |

7·8월

북한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7월 01일	김정일 위원장, 함흥 반도체 재료공장·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현지지도	중통(7/1)
07월 02일	조선중앙TV, 대동강백주 TV 방송광고 실시	조선중앙TV(7/2)
	평양방송, 개성공단 제3차 실무회담 진행상황 보도	평방(7/2)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진행 소식 보도, '토지임대료문제가 해결되면 남 기업들의 애로조건 풀어줄 용의 있다' 주장	평방(7/2)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81권 출판	중통(7/2)
07월 03일	북 선수, 싱가포르 제1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금메달 획득	중통(7/3)
07월 04일		
07월 05일		
07월 06일	조선중앙통신, 최근 전력공급계통 현대화 공사 보도	중통(7/6)
	북, '국방개혁기본계획' 등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 지속	노동신문(7/6~9)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건설장 현지지도	중통(7/6)
	북 대표, 국제테러특별위원회에서 반테러 입장 강조	중통(7/6)
07월 07일		
07월 08일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사망 15돌 관련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통(7/8)
07월 0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제사공장'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으로 개칭	중방(7/9)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발표, '남측의 불성실 태도로 접촉 결렬' 주장	중통(7/9)
07월 10일	북, '1차 인구일제조사'(08.10.1)자료 평가 위한 제2차 인구일제조사 진행 중' 보도	중통(7/10)
	제1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서 금1, 은4, 동4개 획득	중통(7/10)
07월 11일		
07월 12일		
07월 13일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중통(7/13)
07월 14일	제50차 국제수학올림픽(독,7.14~21)에서 금메달 획득	중방(7/21)
07월 15일	조평통 대변인,李大통령 유럽순방 대북발언 비난	중통, 조선중앙TV(7/15)
07월 16일		
07월 17일		
07월 18일	북,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중통(7/18)
	김영남 상임위원장, 제15차 비동맹 정상회의(이집트)에서 6자회담 종료 주장	노동신문(7/18)
07월 19일		
07월 20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비동맹 정상회의 참가후 귀국	중통(7/20)
07월 21일		
0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61호' 발표, '식료일용공업성' 신설	중방(7/22)
07월 23일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태국)에서 6자회담 종료주장	중방(7/25)
07월 24일	조평통, 「2009통일백서」비난	중통(7/24~2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7월 25일		
07월 26일	조선중앙통신, 한-미 을지프리트담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8.17~27) 실시 소식 인용 보도	중통(7/26)
	ARF회의에서 6차회담 종료 주장	노동신문(7/26)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개최	중통(7/26)
07월 27일	조선중앙방송, 남측 신종플루 감염환자 발병 및 증가추세 인용보도	중방(7/27)
07월 28일	김정일 위원장,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중통(7/28)
07월 29일	육해운성, 단천항 건설 관련 궐기모임 개최	평방(7/30)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선집」 제82권 출판	중통(7/29)
	조선중앙TV, 남측의 방송사 자료화면 인용 “南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룬 12분짜리 소개편집물” 방영	중앙TV(7/29)
07월 30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	중방(7/30)
07월 31일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사망	중방(7/31)
08월 01일		
08월 02일		
08월 03일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인민대학습당, 8.3~5)’ 개최	중통(8/3)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3대혁명전시관)’ 개막	중통(8/3)
08월 04일	김정일 위원장, 미 클린턴 前대통령 접견 및 국방위 주최 만찬	중방(8/6)
	‘평양무용대학’ 신설(종전 평양음악무용학원에서 분리)	조선신보(8/4)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방북 동향(8.4~5) 보도	중방·평방, 중앙TV, 중통(8/4~5)
08월 05일	김정일 위원장, “미 여기자 석방 명령하달”	중통(8/5)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 폐막식(인민대학습당)	중통(8/5)
08월 06일		
08월 07일		
08월 08일	태종수 내각 부총리, 함경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	중방(8/8)
08월 09일		
08월 10일	외무성 대변인, ‘나로호’ 발사 관련 기자회견	중통(8/10)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5월1일경기장)’ 첫공연	중앙TV (8/10)
08월 11일		
08월 12일	김정일 위원장, 연극 ‘네운등 밑의 초병(함흥대극장)’ 공연 관람	중방(8/12)
08월 13일	김정일 위원장, 개건된 송도원청년 야외극장 현지지도	중통(8/13)
	‘전국품질관리성과전시회’ 개막식(3대혁명전시관) 개최	중방(8/13)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선집」 제1권 증보판 출판	중방(8/13)
08월 14일		
08월 15일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8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현대그룹 회장 접견(8.16) 및 오찬	중방, 중통, 중앙TV (8/16)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비난	중통(8/16)
08월 17일	북 조선아태위-현대그룹 '공동보도문' 발표	중통, 노동신문 (8/17)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 현지지도	중통(8/17)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일행 방북(8.17~21)	중통(8/21)
	김정일 위원장,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	중통(8/17)
08월 18일	제10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경연(평양, 8.18~20)	중통(8/20)
	김정일 위원장, 개건 확장된 구장양어장 현지지도	중통(8/18)
08월 19일	김정일 위원장,故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들에 조전 발송	중통(8/19)
	故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소식 관련 신속보도	중통, 중방, 조선중앙TV(8/19)
	북 외무성 대변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비난 및 '강경대처 주장' 기자회견	중통(8/19)
08월 20일		
08월 21일	북 '특사 조의방문단' 故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화환 진정	중통(8/21)
	미국이 '광명성 2호' 를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고 주장	조선신보(8/21)
08월 22일	평양 창전네거리 '최초 태양빛전자가로등' 시범 설치	조선신보(8/22)
08월 23일	북 '특사 조의방문단', 이대통령과 면담소식 보도	중· 평방, 중통, 중앙TV(8/23)
08월 24일	'폴란드 사진전시회(평양국제문화회관) 개막	중통(8/24)
	김 위원장 선군혁명영도 개시 4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중방(8/24)
08월 25일	김정일 위원장, 개건 확장된 '5월11일제련소' 현지지도	중통(8/25)
	김정일 위원장, 노래이야기 '우리 님 영웅 되셨네' 관람	중통(8/25)
08월 26일		
08월 27일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에서 개최	조선신보(8/27)
0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8.26~28) 진행 관련 "이산가족 상봉합의" 보도	중통(8/28)
	김정일 위원장, 강원도 원산제염소 현지지도	중통(8/28)
08월 29일	김정일 위원장, 문천시 문천중학교 현지지도	중통(8/29)
08월 30일		
08월 31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